
碩士學位論文

1950년대 小說의 이데올로기 受容 樣相

— ‘舊世代’의 작품을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 東 潤

1992年 12月 日

1950년대 小說의 이데올로기 受容 樣相

— ‘舊世代’의 작품을 中心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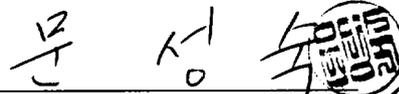
指導教授 金 永 和

金 東 潤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12月 日

金東潤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委 員  
委 員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2年 12月 日

The aspects of accepting ideology on
the Korean novels of the 1950's
(focused the works of the older generation)

Kim, dong-yu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ung-hwa)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2. 12.

차 례

I. 序 論	1
1. 研究 目的	1
2. 研究史 검토	3
3. 研究 方法과 範圍	5
II. 50년대 文學의 背景	7
1. 政治·社會的 背景	7
2. 文壇的 背景	15
III. 50년대 小說의 反共이데올로기 受容 樣相	24
1. 現實認識의 抽象性	24
1) 戰爭觀과 分斷狀況에 대한 認識	27
2) 社會變革에 대한 認識	32
2. 人物 創造의 圖式性	34
1) 左翼人物의 否定的 圖式化	36
2) 右翼人物의 肯定的 圖式化	50
3) 戰時 民間人의 反共意識	62
3. 主題의 劃一性和 思想의 偏狹性	69
1) 휴머니즘과 敎訓主義의 표방	69
2) 實存主義 受容과 反共이데올로기적 要素	75
IV. 反共이데올로기가 文學史에 끼친 影響	79
1. 新世代 作家에 끼친 影響	79
2. 冷戰意識의 強化	88
V. 結 論	90
參考文獻	93
Summary	95

I. 序 論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1950년대 한국소설의 이데올로기 수용, 특히 구세대¹⁾ 작품에서의 반공 이데올로기 수용 양상을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인물과 주제·사상 등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그 양상을 살펴보는 한편,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후대 문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구세대 작가를 문제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당시 문단의 중심 세력이었다는 데 있다. 그들은 일제시대부터 작품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세대이며 해방 후에는 좌우 투쟁을 거치면서 문단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의 활동이 이후의 '신세대'를 포함한 한국 문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관점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50년대의 문학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신세대 작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구세대 작가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다.

우리는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의 한국소설의 사적 흐름과 특질을 파악하고자 할

1) 여기서의 '구세대'라 함은 김동리, 황순원, 염상섭, 박영준, 김이석, 최정희, 최인옥, 김송, 주요섭 등 해방 이전부터 문단 활동을 활발히 해 온 작가들을 말한다. 즉, 장용학, 손창섭, 선우휘 등 50년대 신진 작가들을 지칭하는 '신세대'란 용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구세대'란 표현을 썼음을 밝힌다. 김상선(『신세대작가론』, 일신사, 1982, pp. 31-68 참조)과 김윤식(『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87, pp. 46-50 참조) 등이 전후세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구세대'란 용어를 쓰고 있다. 김상선이 시도한 작가의 세대구분은 다음과 같다. 지나치게 세분되어 그 구분이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구세대 작가와 신세대 작가를 二大別한 것은 무난하다고 본다.

- 근대성적 구세대 작가 -- 야담이나 기담에 가까운 작품을 쓰는 부류
- 근대적 구세대 작가 -- 김송, 최정희, 염상섭, 김이석, 최인옥 등
- 현대성적 구세대 작가 -- 김동리, 박영준, 황순원 등
- 근대적 신세대 작가 -- 이범선, 박경리, 전광용, 박학송, 정한숙 등
- 현대적 준신세대 작가 -- 이호철, 최상규, 서기원, 정인영 등
- 현대적 신세대 작가 -- 손창섭, 장용학, 김성한, 선우휘 등.

때 분단과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는 해방 이후부터 여러 논자들에 의해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한국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시작된 50년대의 문학은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 온 결정적 계기가 된 시기의 문학이라는 점에서 해방 직후의 문학과 함께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기의 문학은 우리 나라의 문학이 남한의 문학과 북한의 문학으로 양분된 직후의 異化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추후 남북을 통합하는 민족문학사의 정립을 위해서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다.

50년대 남한의 문학은 표면상으로는 적어도 이념적 대결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에서, 즉 좌익문학이 발붙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해방 직후의 문학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이전의 경화된 이슈에서 벗어나 '발랄한 환상의 공간'²⁾을 마련한 60년대 문학과도 구별된다.

그러나 "50년대 문학이론의 기본울은 해방과 전쟁이라는 큰 사회적 변동의 한 반영"³⁾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4.19로 인해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된다는 점에서 그 앞뒤 시대의 문학과 상호간에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의 소설에 대해 그동안 논자들은 대체로 한국전쟁의 영향 등으로 냉전적, 반공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해 왔다. 그렇지만 그 지적들은 막연하게 제기되어 왔을 뿐 분석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 거기에는 정치·사회적 상황의 경직성 등 여러가지 이유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논자들 역시 대부분 비극적인 전쟁의 체험 세대로서 평가의 객관적 시각을 확립하기 어려웠던 것도 그 한 가지 이유라고 본다. 체험은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선 미시적으로 포착해 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역사적 사실을 객관화시키는 데에는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50년대 소설을 더욱 객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준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50년대로부터 한 세대가 더 지났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대내외적으로 냉전적 분위기가 탈피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한국

2) 천이두, 『한국현대소설론』(형설출판사, 1992), pp. 263 - 279.

3) 김현, 『테러리스트의 문학』,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 사회와 윤리』(김현문학전집 2)(문학과지성사, 1991) p. 241.

문학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 제약을 벗어나 연구할 수 있는 주변의 여건도 상당히 나아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연구사 검토

50년대 한국소설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이기윤의 「1950년대 한국소설의 전쟁체험 연구」⁴⁾, 유학영의 「1950년대 한국소설 연구 - 전쟁 체험과 갈등 구조를 중심으로 -」⁵⁾, 하정일의 「1950년대 단편소설 연구 -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⁶⁾, 한상훈의 「한국 전후소설의 양상 연구 -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⁷⁾ 등의 논의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 논의의 공통점은 이데올로기의 양상을 살피는데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만큼 그 다루는 범위가 부분적인 것에 그쳐 논의가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

이기윤은 50년대 소설에 나타난 인간상을 중심으로 전쟁체험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는 작중인물들의 인간형을 윤리적 인간상, 자아발견과 현실부정적 인간상, 젊은이들의 고뇌와 자기파탄적 인간상, 역사적 체험과 의지적 인간상 등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그 중에서 일부 작품에 나타난 작중인물들의 이데올로기 갈등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검토되고 있을 뿐이다.

유학영은 분단인식과 이데올로기 갈등에 대해 '분단 현실의 탈이념적 인식과 갈등',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열과 갈등' 등 두 갈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50년대 소설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없는 이유를 전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요인으로만 설명함으로써 작가들의 성향이나 전기적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하정일의 「1950년대 단편소설 연구」에서도 이데올로기의 경직성과 함께 작가와 전쟁(분단)과의 시간적, 정신적 거리가 짧다는 사실만이 문제시되고

4) 이기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전쟁체험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1989.

5) 유학영, 「1950년대 한국소설 연구 - 전쟁 체험과 갈등 구조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 박사논문, 1987.

6) 하정일, 「1950년대 단편소설 연구 -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 연세대 석사논문, 1986.

7) 한상훈, 「한국 전후소설의 양상 연구 -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 서강대 석사논문, 1982.

있을 뿐 당시 작가들의 이데올로기 수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상훈은 '분단의 인식과 이데올로기 문제'를 비교적 폭넓게 다루고 있다. 즉, 작중인물의 이데올로기 수용 양상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로 분열하는 경우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어떻게 순박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가를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조명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양상을 보여주는 데서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용 요인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느낌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호웅의 「50년대 소설론」⁸⁾, 김동환의 「한국전후소설에 나타난 현실의 추상화 방법 연구」⁹⁾, 차원현의 「1950년대 한국소설의 분단인식」¹⁰⁾ 등의 '추상성'에 중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어 상당히 진전되고 설득력 있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호웅은 김동리의 「홍남 철수」· 박영준의 「용초도 근해」· 손창섭의 「생활적」 등을 '추상적 무시간성의 세계'에 대해 다룬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최일남의 「쑥 이야기」를 '원점의 확인'으로, 이호철의 「탈향」을 '출발의 형식'으로, 박경리의 「불신시대」를 '자존심 회복의 형식'으로 나누어 각각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동환은 전후소설에 나타난 현실의 추상화 방법을 '사소설의 선택과 일상성 속의 고백 - 손창섭', '현실의 알레고리화 - 장용학', '소년과 제3국인 화자의 설정과 추상성의 극복 노력 - 송병수' 등 세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차원현의 「1950년대 한국소설의 분단인식」은 50년대 소설에서의 분단 인식을 두 가지 유형으로 다루고 있다. 이범선의 「학마을 사람들」 등을 탈이념적 분단인식으로, 정한숙의 「고가」 등을 분단 현실의 이념적 인식으로 고찰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세 논문들은 추상화 양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살피면서도 추상화 요인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작중인물들의 이데올로기 수용에 대한 탐구, 주제와 사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검토한 논문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당시 신진 작가들에 비해

8) 정호웅, 「50년대 소설론」, 『1950년대문학연구』(도서출판 예하, 1991) pp. 40-58.

9) 김동환,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현실의 추상화 방법 연구」, 『한국의 전후문학』(한국현대문학연구회, 1991). pp. 205-225.

10) 차원현, 「1950년대 한국소설의 분단인식」, 『1950년대문학연구』(도서출판 예하, 1991). pp. 109-131.

‘구세대’의 소설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제까지의 구세대 작가에 대한 논의는 해방전 작품 활동에 대한 평가에 치우친 감이 있다. 그들의 해방 전 활동에 가려 50년대 이후의 활동에 대해 과소 평가하거나 외면한 결과라 생각된다.

3. 연구 방법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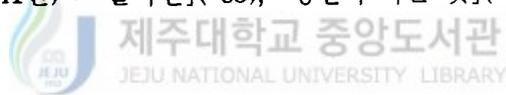
한국의 문학사를 통해 볼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민족문학’이란 말이 강조되어 왔음은 한국문학의 역사적,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국전쟁 등으로 사회적 변화 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했던 50년대의 문학은 특히 사회성을 부각시켜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 시기 문학에서 ‘6·25문학’ 또는 ‘전쟁문학’, ‘전후문학’을 바라볼 때에도 여러가지 관점이 있지만, ‘분단문학’의 한 부분이란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분단문학의 관점은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분단과 그 고착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하여 냉전 극복과 분단 극복의 논리를 근거로 삼고 있다. 분단 인식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50년대 문학의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과 문단의 특성에 대해 살폈다. 이를 위해 작가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탐구, 즉 문학사회학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이같은 50년대 문학의 배경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 다음에는 50년대 소설에서의 반공이데올로기 수용 양상을 추상성·도식성에 관련시키면서 고찰하는 한편, 그 주제와 사상에서의 반공이데올로기 수용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았다. 작품의 분석에서는 역사주의적, 문학사회학적 방법을 주로 원용하였다. 작품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시도한 다음에는 앞의 고찰에서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문학사적으로 구세대의 이데올로기 수용이 신세대 작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몇몇 작품을 예로 들면서 살펴 보았다. 또 오랫동안 지속된 문학에서의 냉전인식 형상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도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50년대 구세대 소설의 이데올로기 수용 양상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려다 보니 주요 작품들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작가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¹¹⁾ (·) 안은 작가의 등단 시기와 작품이 발표된 시기를 말한다.

- 염상섭(1920년) : 「이합」('48), 「재회」('48), 「탐내는 하꼬방」('51), 「취우」('52-53), 「동기」('59).
- 주요섭(1921년) : 「이것이 꿈이라면」('55).
- 최정희(1931년) : 「수난의 장」('55), 「정적일순」('55).
- 김동리(1934년) : 「윤희설」('46), 「귀환 장정」('51), 「밀다윈 시대」('55), 「홍남 철수」('55), 「실존무」('55), 「자유의 역사」('59-'60).
- 박영준(1934년) : 「빨치산」('52), 「암야」('52), 「용초도 근해」('53), 「지열」('54), 「피의 능선」('55), 「도하기」('56).
- 황순원(1937년) : 「곡예사」('52), 「학」('53), 「카인의 후예」('53-'54), 「너와 나만의 시간」('58), 「내 고향 사람들」('61).
- 김이석(1937년) : 「동면」('58).
- 최인욱(1938년) : 「어린 피해자」('55).
- 임옥인(1939년) : 「월남 전후」('56).
- 김송(1941년) : 「불사신」('53), 「영원히 사는 것」('53), 「묘표」('57).



11) 인용 작품들은 한국전쟁 발발시부터 4·19 이전까지 발표된 것들이다. 다만 「윤희설」은 1946년, 「이합」과 「재회」는 1948년, 「내 고향 사람들」은 1961년의 작품인데, 해방 직후 사회 변혁기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50년대에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한 작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들을 인용하였다.

II. 50년대 文學의 背景

1. 정치·사회적 배경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1950년대 만큼 문학이 정치·사회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시기도 드물다. 따라서 그 시대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문학에 대한 시각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당시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한국전쟁의 성격과 그 영향,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과정과 그 성격이나 특징, 냉전 의식의 전개 등을 다각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전쟁의 성격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 보자.

한국전쟁은 해방 직후의 한반도에 대한 미소정책, 미군정과 이승만 일파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파장, 김일성과 스탈린의 무력을 통한 공산화 통일 정책 등에 관련시켜 이해해야 한다. 한국전쟁은 분단으로부터 연유한다. 분단은 당시의 국제적 대립의 한 국지적 관철이었다. 분단은 다섯 단계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다.

그 첫번째 단계는 '영토적 분단', 즉 1945년 8월의 38선 설정과 미소의 분할 점령에 의한 분할을 말한다. 두번째 단계는 신탁통치 논쟁에 따른 민족의 분단이며, 이것은 '이념적 분단'이다. 세번째 단계는 '구조적 분단'으로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이다. 네번째 단계는 1948년 남북에 서로 다른 정권이 수립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도적 분단'이라 부를 수 있다. 다섯번째 단계는 항상적 분단, 또는 항구적 분단이라 부르는 것으로써 1953년 전쟁의 종결에 의한 분단을 말한다.¹²⁾

한국전쟁은 외적인 면에서 보면 남북한 모두에게 대규모 인명 피해¹³⁾와 전면적인 파괴를 가져왔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전쟁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분단은 더

12) 박명림, 「한국전쟁의 구조 : 기원·원인·영향」,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소나무, 1992), pp. 93-94참조.

13) 전쟁기간 중 인명 피해는 쌍방에서 사망자 약 150만명과 부상자 약 360만명이다. 강만길,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84), p.181.

욱 고착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전후 남한 사회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배¹⁴⁾는 가속화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정권안보 논리로 이용하여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에 따라 냉전의식은 사회 전반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특히 친미주의 등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수동적, 체념적으로 수용하게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표출하도록 하였다.¹⁵⁾

전쟁으로 인한 분단은 개인적, 집단적 수준의 모든 것을 갈라놓았다. 그것은 준전시적 대처 상태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었다. 특히 전쟁의 양상은 점령과 수복, 보복과 반보복,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서로에게 증오심을 갖게 하며 분단 구조와 분단 의식을 내면화시켜 갔다. 오랫동안 그것은 동족이라는 민족의식을 훨씬 뛰어넘고도 남았다. 다만 상대방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 타도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전쟁의 영향은 의식의 분절화와 사고의 반신불수화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전쟁은 역사 발전의 또 다른 길과 다른 사회 형태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사고, 자기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한 역사 발전 모색 등, 지금의 사고 체계나 언술 체계와는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고의 가능성' 자체를 막아 버렸다. 남북한 공히 전쟁을 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경쟁해 나간 상황에서 객관이나 과학, 이성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사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¹⁶⁾

이상, 한국전쟁은 해방 직후에서부터의 분단 형성 과정, 냉전체제 수립 과정 등과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며, 전후의 남한 사회 역시 분단과 전쟁에 따른 제반 현상과 관련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에서의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과정과 냉전 의식의 전개에 대해 살펴 보자.

이데올로기¹⁷⁾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밀착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 현실에

14) 전쟁 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독재 체제가 형성됐으며, 전쟁 경험에 의해 철저한 반미의식을 바탕으로 주체사상을 형성·강화해 나가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박명립, 앞의 논문, pp. 131-137 참조.

15) 유재일, 「한국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착」, 『역사비평』(역사비평사, 1992 봄호), p. 144.

16) 박명립, 앞의 논문, pp. 129-130 참조.

17) 이데올로기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각 견해들을 종합하면 '가치체계로써, 한 집단이나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이해관계나 행위 유형을 합리화시켜 주는 세계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

대한 '왜곡된 지식'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측면도 특정 이해관계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왜곡은 근거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인식주체들의 관심과 물질적 이해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규정되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볼 때 이데올로기는 특정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신념체계라는 당파성을 지니게 된다.¹⁸⁾ 반공이데올로기¹⁹⁾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반공이데올로기는 현실의 한 부분만을 고집하여 조명함으로써 '방어적 이데올로기'²⁰⁾로 기능하여 사회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는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신습속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또한 그 성격상 시민사회에 대해 공격적이며 강제적이고 침투성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게다가 성장이데올로기, 안정이데올로기, 자유민주주의이데올로기, 심지어 흡수통일이데올로기 등과 접합하여

㉠ 가벨(J. Gabel) = 이데올로기는 특정의 정치적, 경제적, 인종적 또는 기타의 집단과 사회학적으로 연관된 관념의 체계이다. 이 관념 체계는 그 집단이 다소 의식하고 있는 이익들을, 비역사적인 형식이나 변화에 저항하고 전체성과 유리된 형식 아래, 일방적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허위의식이 이론적으로 정교화 된 것이다. ㉡ 아롱(R. Aron) = 이데올로기는 역사적, 정치적 세계에 대한 하나의 총괄적인 해석의 체계다. ㉢ 만하임(K. Mannheim) = 이데올로기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의 산물이 아닌 일종의 왜곡된 지식으로써의 해석들을 의미한다. <이상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나남, 1992), pp. 357-362 참조> ; ㉣ 부어(M. Buhr)와 코징(A. Kosing) = 특정한 계급적 이익을 표현하고 인간의 사유, 감정,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또 이에 상응하는 행동규범, 입장, 가치 평가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견해의 체계로서 사회적 물질적 관계, 특히 생산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역, 『철학소사전』(동녘, 1991). pp. 279-280 참조>

18) 박재환, 위의 책, p. 358.

19) 반공이데올로기는 ㉠ 공산주의적 이론, 정책, 사람, 운동, 사회에 관한 부정적 呼名들 ㉡ 자본주의적 이론, 정책, 사람, 운동, 사회에 관한 긍정적 호명들 ㉢ 양자의 관계에 관한 호명들이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접합된 총체를 가리킨다. — 강인철, 『천주교는 반공이데올로기 강화에 어떤 역할을 하였나 - 한국전쟁기를 중심으로』, 『사회평론』(사회평론사, 1992.9.10월 합본호), pp.248-259.

20) '뜻'은 '현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 큰 '물리적 힘'을 갖는 것이지만 '현실'의 한 부분만을 고집하여 조명할 때 그것은 '방어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게 되고 '현실'과 유리될 때 '뜻'은 끝내 하나의 '환상'으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박재환, 앞의 책, p. 415.

자신의 취약한 해계모니를 보완해 온 상황인 것이다.²¹⁾ 이러한 한국사회 전반의 반공이데올로기 수용은 50년대에 가장 뚜렷하였으며, 탈냉전 현상과 더불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오늘날에도 사회 곳곳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배집단은 자신들이 그 정당성에서 비판받고 인정되지 못할 때 국내의 대항집단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 극단적인 경우 외부의 적과 위협을 날조하기도 한다.²²⁾ 한국사회에서의 반공이데올로기 형성 과정은 이런 점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반공이데올로기는 일제시대에서부터 형성되어, 미군정기를 거쳐 한국전쟁 이후에 확산·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일제는 황국신민화운동을 전개하면서 군국파시즘의 이데올로기를 전파, 조선민중에게 강요하였다. 군국파시즘은 민족해방운동의 주요 이념적, 물질적 기반이었던 공산주의와 소련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핵심을 이루었다. 이는 조선인들의 의식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봉건제와 자본제의 옹호 = 친일 민족반역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 오히려 사회주의를 설득력 있게 만든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에 대한 탄압과 반공이데올로기 강요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이들에 대한 일반민중들의 부정적 인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²³⁾

해방 직후 미군정은 무엇보다도 좌경화된 이데올로기 지형²⁴⁾을 우익 주도로 변형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군정은 각종 자본주의 법규를 제정하는 한편, 좌익 정치세력을 분열 와해시키기 위해 탄압과 감시를 강화하고 언론과 정보조작을 통한 각종 반소반공 선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군정은 특히 즉각적인 독립을 회구하는 한국민의 의식을 반소반공의 방향으로 돌리는 데 주력하였다. 그들은 소련의 영토적 야욕과 전체주의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편 좌익 세력들을 소련의 하수인으로 몰아붙였다. 한민당 등 극우 세력들은 자신들의 친일 민족반역

21) 유재일, 앞의 논문, p. 248.

22) 박재환, 앞의 책, p. 233.

23) 정영태, 「일제말 미군정기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비평』(역사비평사, 1992 봄호), pp. 126-130 참조.

24) 미군정의 조사 결과 146년 7월 현재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율은 각각 13%, 70%, 10% (7%는 모르겠다고 답함)로 나타났다. 하선영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나남, 1990), p.88 참조.

행위를 은폐, 호도하고 좌익주도권을 와해하기 위해 미군정과 함께 반소반공 선전을 해나갔다. 그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전후하여 반소반공이데올로기를 대대적,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즉 그들은 소련측에서 한국민의 즉각 독립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여 신탁통치를 주장한다고 선전하였다. 우익보수 세력에 의한 반탁운동을 반소반공운동으로 유도하면서 좌익 세력에 의한 찬탁운동을 친소 민족반역 운동으로 매도하였다. 결국 미군정과 극우분단 세력은 반소반공이데올로기를 확산함과 동시에 민족통일 세력들을 억압·배제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²⁵⁾

이승만 세력은 정권 유지를 위해 좌익혁명 세력에 대해서는 폭력 진압으로 대응하고 중도우익 등에는 대해서는 각종 보안사건 조작과 체포·검거로 대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북반공이데올로기를 형성, 활용하였다. “독재체제의 정치지도자는 가상의 적을 끊임없이 창출한다”²⁶⁾는 실례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북한 괴뢰 정권과의 협상은 공산정권의 목시적 승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공산 세력의 침략 위협을 강조하면서 미군 주둔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들은 남한 내부 빨치산 투쟁과 38선상에서의 남북 무력 충돌을 핑계로 북한으로부터의 침략 가능성을 유포하면서 끊임없이 무력북진 통일론을 역설하였다. 북진통일론은 첫째 북한은 소련군의 괴뢰정권이라는 것, 둘째 북한은 공산당 독재치하에 있으며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 셋째 따라서 북한 주민들도 남한에 의한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넷째 중국 공산당의 지배체제 공고화와 한반도에의 영향력 확대 이전에 분단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 등의 논리였다.²⁷⁾

한국전쟁은 반공이데올로기를 확산·정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50년대 반공이데올로기에 미친 한국전쟁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전쟁의 특수한 결과들에 의해 반공이데올로기가 국가주의로서 해계 모니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남북 상호간에 새로운 역사적 단절자를 등장 시킴으로써 지배권력의 정통성 결함을 면죄시켰으며 분단국가의 존립을 정당화시

25) 정영태, 앞의 논문, 130-133 참조.

26) 박재환, 앞의 책, p. 85.

27) 정영태, 앞의 논문, pp. 134-136 참조.

켰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억압적, 이념적 기제를 확대시켰다.

둘째, 이 시기 반공이데올로기는 사회의 내면화를 통해 동의체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분단체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실상을 은폐·왜곡하는 방향으로 사회결속을 유도해 내고 있었다. 이 점에서 그것은 국가나 정치적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수준을 넘어선 지배적 사회계급의 이데올로기 성격을 지녔다.

셋째, 이 시기 반공이데올로기는 그 이념적 기능이 어느 정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세의 변화 속에서 대두되는 도전에 대해 반일주의를 동원하여 그 기능을 보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반일주의는 결과적으로 내재화된 반외세 에너지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분단국가의 정당성을 잠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²⁸⁾

이와 같이 이승만 정권은 전쟁이란 극단적인 상황을 자신의 정치권력 강화에 최대한 이용하는 한편, 전쟁 후에는 국가주의로 정착된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갔다. 공산주의 세력과 3년 동안의 전쟁을 치른 남한 사회는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독재체제 구축을 처음에는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공산주의 세력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요, 그들로 인해 부모형제가 죽고 온 나라가 황폐화하였다는 인식이 국민들의 사고에 깊이 박혔기 때문이다.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확산 문제와 함께 냉전의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50년대 지식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는 당시 문학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특히 해방과 전쟁이라는 격동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당시 지식인들은 서로간에 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점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냉전의식은 그들의 의식에 매우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적과 동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모든 국제 문제와 국내 사건들을 동서 양 진영의 대립이라는 상황 속에서 추리, 판단하는 흑백논리적 도식이 만들어졌다. 이같은 냉전형 사고의 틀 속에 빠져든 결과 사건이나 사실의 과

28) 유재일, 앞의 논문, pp. 143-145 참조.

학적 분석을 시도하거나 객관적 인식을 구하려는 경향은 점점 마비되었다. 반면 사건을 단절적으로 보거나 고정관념에 따라 바라보는 습성이 뿌리내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직선적이고 단순화된 세계관이 산출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냉전형 사고가 깊이 뿌리내렸다. 한국에서의 냉전의식은 세 가지 다른 수준의 체제적 특성이 상호 작용해서 국민의 삶을 반영속적으로 규정하는 모습으로 전개된다. 첫째, 국제체제로부터 오는 제약으로, 한반도가 미소에 의한 국제질서권에 분할 포섭되고 양 진영간의 갈등 관계가 한반도 분할을 매개로 한반도에서 강요되는 상황을 말한다. 둘째, 전쟁 체험으로 증폭된 남북한 분단체제와 그로부터 파생된 양 진영관(two-camp image)으로부터 오는 제약을 말한다. 셋째, 국내체제적 제약으로, 이승만의 집권 과정은 한편으로는 당시의 과제(친일파 처리와 토지 문제)를 유보하는 과정이었으며 그 과제 해결을 바라는 민중부문을 배제하는 과정이었다. 민중부문의 상대적 취약성은 국내체제의 경직화 현상에 강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냉전의식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²⁹⁾

50년대 지식인이 갖는 냉전의식의 구체적 전개는 韓國戰爭에 대한 視覺과 共產主義陣營에 대한 視覺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을 보면, 한국전쟁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민족주의 관점이 배제된 냉전적 분단인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전쟁의 원인 규명에서 국내 체제의 모순이나 이념 갈등보다는 강대국 간의 외교협상 실패 등 국제정치 상황 논리의 결합에 비중을 두어 상대적으로 부각시켰다. 둘째, 전쟁의 성격 내지 의의는 한국전쟁의 세계성이란 인식에 일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유엔군의 전쟁 개입의 정당화의 근거를 안보원리에서 찾고 있음은 물론이요, 역설적으로 그 참전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도 집단안보 원리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에서 찾고 있다. 넷째, 한국전쟁이 국제적 세력 간에 제한전의 성격이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그것은 휴전에 대한 거부감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당시 지식인들의 공산주의진영에 대한 시각에서 공산주의 비판의 논조

29) 남궁곤, 「1950년대 지식인들의 냉전의식 - 『사상계』에 나타난 국제질서관을 중심으로-」,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태암, 1991), pp.126-129 참조.

는, 첫째 공산주의와는 전쟁이라는 실제험을 통해 적대시하게 되었으므로 논리적 차원에서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조건반사에 의해 절대악으로 규정하게 되어 정확한 실제 파악이 인식의 전제가 되지 못하였으며, 둘째 공산주의 국가를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지 않고 진영론에 의거하기 때문에 그 논조가 도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고(소련의 위성국 개념), 셋째 공산권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자본주의 진영에서 발행된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쉽게 왜곡된 논조로 흘렀다. 특히 공산주의가 갖는 이론적 결함으로 半神秘的인 메시아 의식, 절대 충성과 희생 강요, 마르크스·레닌 저작물의 성전화, 지도자들의 신격화, 의회정치와 부정과 폭력을 전제로 하는 무정부적 혁명성, 독자성과 특수주의가 용인되지 않고 민족의 역사적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민족소멸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무시하고 기계화시킨 그릇된 방향성 등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다.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소련에 대한 비판은 그 국가제도의 비민주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소련의 국가성격을 규정한 것은 불세비즘임을 주장하는데, 불세비즘의 정치적 특징은 독재에 핵심이 있다고 본다.

냉전적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50년대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의 명분적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 반공이데올로기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운동의 장을 확보하여 일정한 질서 속의 안정 유지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가치체계 수신 채널을 단일화, 획일화시켜 놓음으로써, 수입된 자유민주주의는 현실과의 긴장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회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³⁰⁾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당시의 문단 역시 냉전 논리에 반항한 것이 아니라 별다른 여과없이 수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들은 냉전 논리가 만연된 전쟁 후의 사회상황에서 문학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주체적 입장에서 소화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또 그럴만한 사회 분위기도 조성되지 못하였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체제 수용을 유도하는 쪽으로 작용하게 마련인 것이다.

30) 위의 논문, pp. 134-146 참조.

2. 문단적 배경

50년대의 문단적 배경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작용에 대한 작가들의 동조, 작가들의 전쟁 체험, 월남 작가들의 성향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작용에 작가들이 어떻게 동조하였는지에 대해 살펴 보자.

해방 직후에서부터 문학은 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해방공간의 문학단체의 분열은 해방공간의 문학적 지식인이 권력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데올로기의 극한적 대립으로 형성된 권력과 지식의 결합으로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이 결과는 문학적 폐허화를 재촉하였다.

민족의 분단은 우선 남북의 정치체제의 대립을 낳음으로써 분단체제의 양립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게 되었다. 김일성 정권은 분단논리를 이용하여 독재를 합리화하였고, 이승만 정권은 반공이념이 이데올로기적 배타성을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하며 일인독재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이승만 정권의 정책이 반공을 제일의 지향점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건설하는 것이며, 전쟁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대안이었기 때문에 긍정적 지식이란 현실에 대한 리얼리즘적 안목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리얼리즘적 안목이란 마르크시즘적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정권의 정책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아닌 관념적 인식을 낳는다.³¹⁾

문인들은 이러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정책에 동조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게 된다. 당시의 문단이란 해방 직후의 좌우의 논쟁의 과정에서 우익의 기수들이 만든 '한국문학가협회'에서 기인한다. 이 문단은 정부의 수립·발전 과정과 함께 성장해 온 것으로 권력과 문단의 관계가 제도적 차원을 통해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전쟁 중 정훈장교로 참여한다든가 '문인보국대'로 정부에 협력한다든가 하여 문단의 권력 관계를 형성한다.³²⁾ 그들은 다음의 언급에

31) 전기철, 「한국 전후 문예비평의 전개양상에 대한 고찰 -불안 의식의 내재화와 응전력을 중심으로-」(서울대 박사논문, 1992), p. 16.

32) 위의 논문, pp. 6-7.

서 나타난 것처럼 '대공문화전선'의 선봉에서 활약하였다.

(...) 당시의 文壇主體勢力의 動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적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상과 같은 文學的 要求를 당시의 文壇의 責任者들이 어떻게 구체화시키려고 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文壇의 主體勢力이라 함은 解放 直後부터 그때까지 對共文化戰線을 組織 指揮해 온 文壇의 鬪士들을 의미한다. 즉 文總이나 文協의 文壇關係의 中心人物들을 말하는 것이 된다. 좀더 분명히 말한다면 朴鍾和 李軒求 金珣燮 吳宗植 金永郎 金晉燮 金東里 趙芝薰 朴木月 郭鍾元 金松 徐廷柱 毛允淑 柳致眞 崔泰應 薛昌洙 俞東濬 洪九範 李光來 柳致環 朴斗鎭 그밖에 이에 준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된다.³³⁾

조연현이 밝히고 있듯이 김동리, 김송 등의 당시 문단주체 세력들은 대공문화전선을 조직 지휘하였다. 즉, 우익 문인들은 정권과 밀접히 결합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나간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정치 성향은 표면적으로든 내면화되어서든 작품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구세대 작가들의 순수문학은 그들이 내건 구호와 달리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것이었다. 특히 해방 직후 이들의 활동이나 작품을 보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좌우이데올로기 투쟁에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지원으로 우익문단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사실은 이들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우선 김동리의 경우를 보자. 그의 '순수'주장은 진보적 진영의 정치를 맞ن는 것이었다는 점에서부터 역시 정치적인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해방 직후에서부터 전쟁을 거치는 동안 반공 성향의 일관된 궤적을 드러내고 있음³⁴⁾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된다. 「윤희설」(46) 등의 작품은 그의 반공성향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김동리의 「윤희설」에 대해 이원조는 그것이 '순수문학의 냄새만 풍겼지 실은 엄청난 정치소설'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원조의 지적인 즉, 좌익측에 맞서 김동리가 외쳐 온 '순수'의 주장이란 이 소설을 통해 확인되듯 정치의 역학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알고 보면 반동적인 정치노선에 유착되었다는 것이다.

33) 조연현, 「조연현문학전집1:내가 살아온 한국문단」(어문각,1977), p.238.

34) 신형기, 「순수의 정체 --해방기의 김동리」, 「문학과 논리」제2호, (1992, 태학사), pp. 126-143 참조.

아닌게 아니라 작가의 메가폰적 인물 '종우'가 좌경에 이끌림을 받는 애인 '혜련' 앞에서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는 모습이라든가, 결혼 이튿날 독립전취국민대회장을 찾은 종우와 혜련이 대회의 상황을 보며 민족혼 운운하는 장면은 이원조의 그와 같은 비난을 수긍하게 할 만한 것들이다.³⁵⁾

김동리는 어릴 때부터 좌익사상에 대해 저항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유혼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좌익사상에 대해 말한 바 있다.

그곳 사람들은 이 두 분 손님을 가리켜 사회주의자라 불렀다.(...) 손님들은 나를 더욱 귀여워했고, 나에게 더 많이 말을 붙이려 했고, 가르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웬지 늘 저항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도 그들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차례 들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그 골자가 무엇이든 대강 알고 있는 셈이었다. 그 골자란 것 가운데 우선 모든 사람이 능력껏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것과 부자와 가난한 자가 따로 없이 동등사회가 된다는 두 가지가 웬지 석연치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에 언제나 저항 자세를 취할 뿐이었다.

나는 그 뒤 중학엘 진학했고, 좀 엉뚱하게 철학과 종교관계 서적도 톱툰이 뒤적거리곤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매형같이 두 분 가르침을 이해해 보겠다는 생각보다 나의 저항 의식을 이론화시켜 그들과 맞서 토론을 해보겠다는 저의에서였다.

(...)그러니까 어린 날의 그 저항 의식은 나의 기질 속에서 돌아난 자유혼의 짝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도 없는 나의 체질이요 성격이요 운명이라고 보아야 한다.³⁶⁾

이 무렵에 반공청년단체이며 한국 민주당 계열의 청년단체인 고려청년단이 진주에서 그를 찾아와서, 시국 강연을 하겠으니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동리는 사천 청년회 사람들과 상의해서 극장을 빌려 놓고 벽보도 써 붙였다. 그러나 강연이 있는 날 삼천포에서 삼천포민주청년동맹 농민조합 소속 청년 수백 명이 몰아다쳐 마치 피에 주린 맹수들처럼 소리를 지르며 뛰어 올랐다. 김동리는 '발길질과 주먹질로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경찰은 멀쩡감치 서서 구경을 하다가 슬그머니 풍무니를 빼어 버렸다. 그 때 (...)W군이 그를 업고 극장을 빠져나오지 않았던들 그는 그날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른다.³⁷⁾

35) 위의 논문, p.126.

36) 김동리, 「자유혼의 짝」, 『생각이 흐르는 강물』(잡인출판사, 1985), pp. 86-95.

37) 이태동, 「한국 순수문학에의 위대한 집념」, 『한국대표명작11-김동리』, (지학사, 1985), p. 287.

앞의 인용문은 중학교 입학 전후한 시기, 뒤의 인용문은 해방 직후의 김동리를 각각 말한다. 어린 시절 철학·종교서적을 읽은 것도 좌익에 대한 저항 의식을 이론화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그의 좌익에 대한 저항적 기질 속에서 나온 '자유혼의 싹'은 해방 직후의 좌우 투쟁에서 그를 우익의 기수로 만들어 좌익에 의해 테러를 당할 정도의 행동에 나서도록 하였던 것이다. 앞서 살폈듯이 「윤희설」에 나타나는 그의 좌익에 대한 인식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진 염상섭도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 김윤식은 염상섭이 위치한 좌표는 중립적이어서 극단적인 좌익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한에서 정립되기 시작한 우익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³⁸⁾ 권영민도 마찬가지로 염상섭의 중간파적 입장에 대해 언급하였다.³⁹⁾ 그냥 정치적인 대립의 와중에서 벗어나 자기의 세계에서 작품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견해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염상섭은 해방 직후에 「이합」, 「재회」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들 작품에는 작가의 뚜렷한 반공 의식의 표출이 엿보인다.⁴⁰⁾ 그렇다고 그가 우익진영을 비판하는 시각을 드러내 보이는 작품을 그만큼 썼던 것도 아니었다.

「이합」과 「재회」는 서로 별개의 작품이지만 「재회」가 「이합」 후의 이야기로 같은 선상에서 읽힌다. 「이합」은 주인공 '장한'이 그의 아내가 부인회 군지부 부위원장 되어 집안일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밤중에도 '짜질러' 다니자 결국 아내를 두고서 월남하는 내용이다. 「재회」에서는 아내가 북의 생활을 버리고 월남하여 '장한'과 같이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서 작가는 은근히 남편은 '우익', 아내는 '좌익'으로 각각 설정하여 아내가 좌익사상에 부화뇌동하여 집안의 평화가 깨지게 되나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용서함으로써 재회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작가의 반공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이들 작가들은 미군정 및 이승만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있었다. 때문에 당시 작가들에게는 세계관의 한계가 드러난다. 이러한 작가들

38) 김윤식, 『염상섭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pp. 689-843.

39) 권영민, 「염상섭의 중간파적 입장 - 해방직후의 문학활동을 중심으로」, 『염상섭 전집 10』(민음사, 1987), pp. 315-426.

40) 임현영, 『문학과 이데올로기』(실천문학사, 1988), p. 303.

의 한계가 그들의 작품 세계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다음으로 반공 이데올로기와 작가들의 전쟁 체험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자.

구세대 작가들은 대부분 종군작가들이었다. 육군에는 김송·박영준·김이석, 해군에는 염상섭, 공군에는 최정희·황순원·김동리 등이 각각 종군하였다. 그들은 종군 과정에서 『전선문학』⁴¹⁾, 『해군』, 『창공』 등의 기관지를 펴내는가 하면, 군가를 작사하고 군인들을 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종군 체험은 분단 상황에 대한 이념적 대결 문제에 대한 해석의 폭을 좁혀 놓았다. 그들은 전시에 종군작가로서 활동할 때 만이 아니라 이후의 작품 세계에서도 반공성향을 띠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일부 작가는 전쟁이전부터 반공성향의 작품을 쓰기도 하였다. 당시 작가들은 전쟁에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니지 못하였다. 작가들의 전쟁 체험은 “한국 전쟁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미시적으로 포착하여 잘 볼 수 있도록 하지만 분단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올바른 의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었던 것”⁴²⁾으로 파악된다.

문학적 형상화의 성패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직접 체험의 유무는 같은 소재를 놓고도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낳게 된다. 비록 소년기에 그것도 후방에서 겪었다 하더라도 전쟁을 ‘직접’ 겪은 작가들과 ‘들어서 안’ 작가들 사이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자의 작가들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삶의 일부요 현재의 한 형성 요인으로 떠오르기 쉽지만, 후자의 작가들에게

41) 1952년 육군종군작가단에 의해 창간된 『전선문학』의 창간사에는 당시 문인들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이제 生死의 關頭에서 우리들이 가진 唯一無二의 武器인 鐵筆을 들고 砲煙 彈雨 속에 옷뚫 선 것이다. 突擊하는 것이다.

(…)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싸우려는 ‘펜’은 그야말로 手榴彈이며 野砲며 火焰放射器며 原子水素의 新武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뜻은 許多한 우리의 殉國烈士들의 그것을 그대로 繼承할 것이며 우리들의 行動은 坐하여 慨嘆하고 立하여 叫呼하는 것이 아니다. 眞實로 爆彈을 안고 敵의 塹壕 깊이 突入하여 自爆하는 (...) 勇士의 그것이 아니면 아닌 것이다. 이 뜻 이 行動 外에 또 한 가지 重大한 任務가 있음을 自覺하노니 그것은 (...) 聯絡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一線將兵의 士氣를 軒昂케 하고 銃後國民의 戰意를 昂揚케 하는 特殊任務가 곧 이것이다.”(『전선문학』 창간호, 1952, p. 9)

42) 김승환, 『분단문학과 분단시대』, 『분단문학비평』(청하, 1987), p.31.

한국전쟁은 역사적 사실로 다가서기 쉽다.⁴³⁾ 즉, 전쟁의 체험이 오히려 전쟁을 객관화하는 데에는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쟁이 일어난 50년대에서는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한국전쟁의 의미를 폭넓고 깊게 생각할 여유가 당시 문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다.⁴⁴⁾ 때문에 전쟁 미 체험세대가 보기엔 오히려 체험세대야말로 한국전쟁조차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한계에 갇혀 있다고 여겨지는 것⁴⁵⁾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쟁의 참상에 대한 직접적 체험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등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경직성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한국전쟁 종군은 전시의 작품 활동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종전 후의 작품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구세대의 전쟁체험은 그들의 문학을 살찌게 했다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도 이승만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 확산책과 맞물려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越南作家들의 성향에 대해 알아 보자.

황순원, 박영준, 김이석, 임옥인 등 월남 작가들은 대개 월남하기 이전에는 북에서 기득권 계층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좌익들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박탈되었다는 인식이 심리적으로 작용하여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의 작품에는 좌익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향에 대해 그리면서도 실향 극복 의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즉 분단 극복 혹은 통일 지향 의지가 제대로 형상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가들의 월남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해방 직후에 진보적 지식인들의 태반이 월북을 했던 사실을 염두에 둘 때 해방 전 일본 등지에서 대학을 다녔던 이들의 월남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떠나서는 쉽게 설명될 수 없다⁴⁶⁾. 월남한 시기에 따라서도 양상이 다르다. 말하자면, 해방 직후에 월남하였는가, 전쟁 중에 월남하였는가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직후의 월남은 대부분 사상에 의한 월남임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43) 조남현, 「6.25의 소설화 방법」, 『동서문학』, 1988.6월호, p. 35.

44) 김영화, 「1950년대 전반기의 문학」, 『논문집』(제주대학교, 1992), p.38.

45) 김승환, 앞의 논문, p. 32.

46) 김동환, 앞의 논문, p. 213.

한국전쟁을 전후한 월남민들의 월남 동기와 계급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⁷⁾

첫째, 해방시점에서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월남한 숫자보다 전쟁 중에 월남한 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비율은 최소 3:7인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월남 동기는 정치·사상적 요인, 계급·경제적 요인이 합쳐서 약 55~60%를 차지하고, 전쟁요인이 약 40~45%를 차지한다. 계급별 월남 동기를 보면, 지배계급 64.7%, 중간계급 55.6%, 피지배계급 35.3%가 각기 정치·사상적 이유로 월남하였으나, 전쟁요인에 의한 월남은 지배계급 23.5%, 중간계급 22.2%, 피지배계급 50%다. 즉, 지배계급일수록 월남 동기가 정치·사상적 이유가 주가 되는 반면, 피지배계급일수록 전쟁요인이 주가 된다. 셋째, 월남인의 계급적 위치는 지배계급 출신이 많다. 이는 북한사회가 지향하는 역사 방향이 기존 지배계급의 근본 이익과 상치된 데 따른 것이다.

전쟁 이전에 월남한 작가는 황순원, 박영준, 임옥인 등 구세대 대부분이다. 전쟁 중에 월남한 구세대에는 김이석이 있다. 먼저 황순원의 월남 경위를 보자.

일제관헌들은 고향에 소개되어 있는 지식 청년 황순원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 보았고 동네 사람들은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고향에서 무위도식하고 있다고 수군댔다. 그러다가 그는 해방을 맞이했고, 활동을 위해 고향을 떠나 평양 정의여학교 교사로 취직했다. 그러나 그는 지주계급출신의 지식청년이었으므로 공산화된 북한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그는 곧 요시찰 인물이 되었고, 끝내 월남을 결심하고 말했다.

해방이 됐을 때, 그의 주변에서 맨 먼저 월남을 단행한 사람은 그의 장인 楊

47) 강정구, 「6.25전후 월남민들의 월남 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사회평론』, 1992.8월호, pp.242-257.

<표> 월남 1세대의 월남 동기

월남 동기	빈도(a) 백분율		빈도(b) 백분율	
남쪽의 양호한 식량사정(우연적 요인)	1	4.2	1	1.6
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서(정치·사상적요인)	10	41.7	28	46.7
재산을 몰수당하여(계급·경제적 요인)	2	8.3	7	11.7
미군이나 국방군의 권유에서(전쟁요인)	0	0.0	1	1.6
전쟁폭격을 피해서(폭격요인)	11	45.8	23	38.3
합 계	24		60	

a : 월남 1세대로부터 직접 획득한 자료

b : 월남 2세대로부터 간접적으로 획득한 자료

錫烈이었다. (...) 黃順元은 해방이 된 1945년을 넘기면서부터 신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족들과 월남행을 상의했다. 삼촌들은 반대의 뜻을 보였으나 숙의 끝에 부친 贊永이 1946년 3월에 먼저 단독으로 월남하여 사돈 楊錫烈을 만나 같이 있게 되었다. 순원은 모친과 아내와 동생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그해 5월에 38선을 넘었다.⁴⁸⁾

그가 “지주계급 출신의 지식 청년이었으므로 공산화된 북한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어 월남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의 작품 「카인의 후예」와 「내 고향 사람들」은 자신의 월남하기 전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으로, 작가의 사상을 읽는 데 시사해 주는 점이 많다.

임옥인 역시 전쟁 이전인 1946년에 월남하였다. 「월남 전후」에는 그녀의 월남 직전 북한에서의 생활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생각들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의 분신으로 파악되는 ‘김영인’이라는 이름의 ‘나’는 소련군의 폭탄에 집을 잃고, 공산주의 골수분자인 동생 ‘울민’의 무자비한 행동 등을 보면서 북한사회에 환멸을 느껴 월남을 결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임옥인의 월남은 사상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영준은 평남 강서군 출생이다. 아버지가 기독교 목사였던 것, 어릴 때 서당에서 漢學을 수학한 것,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옥사했는데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집안이 꽤 부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한국전쟁 중 피난을 못하고 있다가 인민군에게 피랍되어 끌려 가던 중 탈출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⁴⁹⁾ 이러한 그의 경험은 구세대 중에서도 특히 반공 성향이 두드러진 그의 작품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김이석은 평양에서 출생,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광성고보를 졸업한 후 연희전문에서 수학하였다. 1941년 명륜여상에 재직한 바 있으며, 해방 후에는 칩거하다가 1951년 1·4후퇴 때 월남, 종군작가로 활약하였다.⁵⁰⁾ 그도 기독교 집안인 면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교사로 재직한 적이 있다는 사실 등은 북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쥐기 전까지는 꽤 안정적인 생활을 누렸으리라는 것을 짐

48) 김동선, 「黃고집의 美學, 黃順元 가문」, 『황순원문학전집12 - 黃順元 研究』 (문학과 지성사, 1985), pp. 181-182.

49) 박영준 연보 참조, 「농민 / 종각 외」(삼성출판사, 1986), pp. 422-425.

50) 황송문, 「실향작가론」, 『북한』 1985. 3월호(북한연구소), p. 172.

작게 한다. 해방 후에 칩거하였다는 사실은 사상적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50년대의 문단적 배경은 우익문단 체제가 확고히 정착되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해방 직후에서부터 좌우 투쟁을 거치며 '문협' 중심의 문단이 형성되기까지의 정치적 영향과 작가들의 동조, 작가들의 전쟁 체험, 월남 작가들의 성향 등은 당시 문단의 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문학에서 반공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요인과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Ⅲ. 50년 小説의 反共이데올로기 受容 樣相

1. 현실 인식의 추상성

50년대는 전쟁이 문학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시기이다. 전시의 문학만이 아니라 전후의 문학까지도 전쟁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전쟁은 또한 분단과 직결된다. 그러나 전쟁이나 분단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구체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 재현과는 거리가 있었다. 50년대 문학은 “전쟁체험과 그에 대한 비극적 인식이 종종 정치적 허무주의나 추상적인 이데올로기 부정으로 치닫기 일쑤”⁵¹⁾였던 것이다. 당시의 거의 모든 소설들은 한국전쟁이나 분단 현실이 갖는 시대적, 사회적 특수성의 천착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그것은 곧 ‘추상화’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체성이 無化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가들의 전쟁 체험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인식을 오히려 폐쇄시켜 버리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50년대 소설, 특히 구세대의 소설은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 작가가 객관적 현실을 역동적인 국면에서 포착하여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탐구하여 형상화하지 못하고 반영되어야 할 현실 세계로부터 벗어나 ‘추상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그 한 특성⁵²⁾이라 볼 수 있다. 즉 50년대의 소설은 분단 현실이나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루는 경우 인물에 대한 묘사와 줄거리 전개에서 사회적 계기들과 개인적 계기들이 엮어내는 유기적 연관이 결핍되어 ‘추상적 무시간성’⁵³⁾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이다.

51) 한수영, 「1950년대 한국소설 연구 ; 남한편」, 『1950년대의 남북한 문학』 (평민사, 1991), p. 68.

52) 정호용, 앞의 논문, pp. 42-51 ; 차원현, 앞의 논문, pp. 111-131 ; 김동환, 앞의 논문, p. 208 참조.

53) 루카치는 바이마르 시대의 급진좌파들이 순전히 허구적인 세계를 지어내는 당대의 소설관습에 날카롭게 저항하여 인간본질의 표현(서사시의 표현)으로 되돌아갈 것을 촉구했으나, 그들 역시 추상적 ‘무시간성’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래서 50년대의 소설은 분단 현실이나 이데올로기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것은 사태의 진상을 개인적인 체험 영역에 국한시켜 버리거나⁵⁴⁾ 반전의 휴머니즘을 강조하기 위해 '양심의 문제'만을 부각시킴으로써 한국전쟁의 구체성을 무화, 추상화시키고 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 문학 작품 속에 형상화된 작중 인물들의 경우도 한국전쟁에서 갖가지 상처를 입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로써 그 구체성을 잃고 일반적인 인간으로 추상화되어 나타난다. 한국전쟁과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구체성과 특수성이 무화되고 추상화되어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전쟁, 일반적인 인간만이 부각된 자리에서 반공이데올로기와 접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객관 현실의 구체성으로부터 벗어났기에 객관적 존재태는 파악될 수도, 파악될 필요도 없다. 반공이데올로기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남한 사회의 상황에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될 뿐이다. 객관현실의 탐구라는 작가의 의무는 포기되고 만 것이다.⁵⁵⁾ 그렇게 된 이유는 주로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작가들의 개인적 성향도 부분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공이데올로기와 냉전의식이 만연한 당시 상황에서 50년대 구세대 작가들은 정치적 영향을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강하게 받았다는 점과 중군작가 등으로 활약하면서 전쟁을 직접 체험한 점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역사 현실을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띠었다. 이와 함께 작가 자신들이 전쟁 이전의 좌우의 투쟁 과정 등에서부터 지니고 있던 우편향적인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 그들의 작품 세계를 이끌었던 것이다.

50년대 문학은 개인과 사회·역사적 계기 사이의 유기적인 관련을 무시하거나 구체성을 간과한 탓으로 무시간성의 문학이 되었다. 이와 같은 무시간성의 세계 인식 위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도 절대적 의미를 띠는 것으로 수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⁵⁶⁾ 즉, 50년대 작가들의 무시간성의 세계 인식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하였던 것이다.

즉, 사회적 내용에 대한 몰음을 진지하게 비판적으로 탐구하지 않은 채 하나의 형식에 대하여 그저 또 다른 하나의 형식이 내세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루카치(반성완·임홍배 역), 『독일문학사』, (심설당, 1987), p. 256.

54) 권영민, 『한국민족문학론 연구』(민음사, 1988), p. 455.

55) 정호웅, 앞의 논문, p. 47.

56) 위의 논문, p. 48.

50년대 구세대의 작품 중에는 전쟁이나 분단 현실에 대해 이데올로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작품들도 있다. 이는 “분단 현실을 목가적인 공동체의 자기 운명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신화적 세계로 환치하여 그 속에서 현실의 갈등을 용해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현실 인식의 유형과 현실 속을 부유하는 개인적 삶의 문제와 연관하여 분단을 인식하는 일련의 방식”⁵⁷⁾으로 나타난 것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데올로기 문제에서 벗어났다기보다는 추상화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염상섭의 「취우」를 예로써 살펴 보자. 전쟁 기간 중 연재된 이 작품은 인공치하에서 수난을 당하다가 1.4후퇴 때 부산으로 떠나는 장면에서 끝난다. 작가는 전쟁통에 우왕좌왕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한가한 눈으로 그려내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냉정하고 비정하게 지켜본 것이다. 한편에서 보면 “이런 시각이 있었기에 우리는 동족이 서로 죽이는 처참함을 반성하며 반추할 수 있게 된 것”⁵⁸⁾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염상섭의 그 냉정한 시선은 객관적 현실의 추상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조차 「취우」에선 제기되지 않고 있다. 단지 전쟁이 터지니까 피난을 가야 하고, 소나기처럼 순간적인 수난이니 일단 피해서 끝날 때만을 기다린다는 인식인 것이다. 객관적 현실 인식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이데올로기 문제를 좀더 직접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작품들은 거의 천편 일률적으로 우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류의 작품들은 분단의 원인이거나 이데올로기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이것도 추상화의 한 방식인 것이다. 염상섭의 「동기」, 김동리의 「홍남 칠수」와 「자유와 역사」,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당시 구세대의 작품에서

57) 차원현, 앞의 논문, p. 111.

58) 한승옥,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난류」, 「취우」, 「지평선」을 중심으로-」, 『승실어문』 제7집, (숭실대학교 승실어문연구회, 1990.) p. 33.

59) 50년대 소설의 장르적 특성에 관한 논의는 하정일의 「1950년대 단편소설 연구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연세대 석사논문, 1986)를 참고할 것. 하정일은 이 논문에서 50년대는 소설의 지배적 형식이 단편소설일 수밖에 없었던 내적·외적 필연성이 존재한다면서, 단편양식이 주를 이룬 것은 당대가 총체성에의 전망이 사회적 수준에 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더 이상 아님’(No-Longer)의 시대였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나 분단 현실의 문제를 본격적,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시도하였던 작품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소설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본격적, 구체적 접근이 없이 추상적, 관념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적 요인과 작가의 사상적 성향 등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아울러 문학 자체로도 당시로서는 소설양식에서 장편소설 양식이 보편화되지 못했던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소설양식의 문제⁵⁹⁾에 원인이 있다는 것은 이후 분단과 이데올로기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뤘다고 평가되는 작품들이 대체로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같이 장편소설이라는 사실을 보면 반증이 된다.

이상 50년대 소설의 현실 인식이 추상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추상성의 개념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제 추상적 현실 인식의 양상을 전쟁관과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 사회 변혁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누어 알아 보자.

1) 전쟁관과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

50년대 소설에서 전쟁이나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냉전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측에게만 돌리고 있다. 대외적인 요인에서도 당시 국제적 대립구조의 국지적 관철인 전쟁을 소련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만 바라보지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역사적 현실의 추상적인 묘사로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동리의 장편 「자유의 역사」는 한국전쟁 직전에서부터 9.28 서울 수복 직후까지가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한국전쟁을 통해 당대 지식인들의 이데올로기와 사랑이 어떻게 변질되고 극복되는지를 비교적 다양한 삶의 행태로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역시 앞의 제2장에서 살펴 본 50년대 지식인의 그것처럼 냉전적 시각에 입각해 있음이 드러난다.

그들은 연극을 실감나게 꾸미기 위해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같은 것을 일일

이 밝혀가며 허위 선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본격적인 침략준비를 엄폐하기 위한 모략이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정치 협상을 제안하는 반면 삼팔선상에 있어서는 철사이 없이 국부적인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일방 남한에 있어서의 지하 공작대에 의한 반란 음모와 유격대의 침략 공작을 극력 추진시킨 일이다.

(...)일련의 평화 공세는 물론 그들의 침략 준비, 군사 이동 등을 엄폐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명목적인 침략 구실을 삼으려고 한 것도 사실이다. 그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6월 23일까지에 남침을 위한 배치 장소에 군사 이동이 완료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⁶⁰⁾

작가는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적과 동지를 명백히 구분하는 냉전의식의 반영인 것이다. '음모'라든가 '모략', '허위 선전', '침략 구실' 등의 표현에서 보듯이 평화를 깨뜨리는 전적인 책임은 오로지 '적'의 행위일 뿐이다. 삼팔선에서의 국부적인 무력 충돌을 모두 북한만이 일으켰다는 표현 등은 현실을 올바르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 못 된다. 전쟁 직전의 삼팔선에서는 남북한 군대 간에 대소규모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그중 일부는 남한 쪽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났다는 사실⁶¹⁾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당시 소설에서는 철저한 냉전의식을 바탕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

전쟁 중의 젊은이들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김송의 「영원히 사는 것」은 전반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적 시각이 상당히 뚜렷하게 부각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당시 사람들의 전쟁관이나 분단 인식이 잘 나타난다.

“대통령 말씀(방송)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 준다는데 언제 도와줘요?”
“그것은 전 민족의 비원이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공산군을 무찌르고 남북을 하나로 만드는 일.....”
그러나 서울은 풍전등화(風前燈火)같이 위급한데, 태평양 건너 먼 나라인 미국의 용원군은 언제 올는지 모른다. 하루가 급하고 한 시간이 다급한 아니 단

60) 김동리, 『자유의 역사』, (중앙일보사, 1987), p.286.

61) 남한의 선제공격에 의해 충돌이 발생한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본다.

“대대규모 부대가 동원된 충돌이 8월(1949년-필자 주)에 다시 불붙으면서 대규모 전투가 웅진, 개성, 춘천에서 발생하였다. 사건은 남한 대대가 38선 북방 수백 킬로미터에서 개성을 관측할 수 있는 488고지의 북한 관측소를 공격한 7월 25일에 시작하였다.”(존 메릴, 『한국의 내란, 1948-1950 : 한국전쟁의 국지적 배경』, 브루스 커밍스 외, 박의경 역, 『한국전쟁과 한미관계』(청사, 1987), p.183.)

30분도 조금한 빈사자가 옥수(慾水)하듯, 백오십만 서울시민은 불안한 암흑 속에 목을 늘이고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비행기라도 얼른 와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럼소. 뱀뱀대가 날라와서 삼팔선을 쳐 주었으면…….”⁶²⁾

“북한군 놈들이 제 아무리 이십여만 대군을 동원하고, 탱크 수백대를 앞세우고 내려온대도 저 미군 탱크 미군 대포 앞에는 어림도 없지…….”

“그럼구 말구…… 저이놈들이 기건 사용한대야 별 수 있나, 쏘련의 앞재비들이니까, 쏘련에서 쓰다가 낡은 것들을 물려받은 것 뿐이야. 저 미군 백이십미리 포를 한 번 쾡 하고 터뜨리는 날엔 그야말로 추풍낙엽 지듯이야.”

군중들이 미군을 환영하며 미제군기를 찬양하느라 별별 수다를 다 떨고 있는데 때마침 공중에선 프로펠러 소리가 들렸다.⁶³⁾

그야말로 미국은 구세주다. 그들이 빨리 참전을 해 줘야 공산군의 침략 앞에서 ‘풍전동화’의 위기에 있는 조국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참전을 “단 30분도 조금한 빈사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백오십만 서울시민이 불안한 암흑 속에 목을 늘이고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소련의 ‘앞재비’로 인식된다. 민족주의적 의식보다는 양 진영관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적 시각이 우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인용에서는 공산주의가 민족의 역사 의미를 부정한다는 민족소멸론이 드러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만약 한국도 중국 모양으로 공산화한다면 …… 민족성은 차츰 소멸되고 사상적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50년간 동양의 중심문화적인 중국이 공산화한 이후의 가지가지의 사실이 그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그것과 같이 일천 구백 오십년 유월 이십 오일 새벽 북한 공산군의 불의 남침도 중공과 동일한 적화공작이다. 이를테면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공산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란 것은 아동주졸도 알 일이다.⁶⁴⁾

전쟁 직전 남북회담에 임하는 남측과 북측의 자세에 대한 인식에서도 현실에 대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남쪽에서는 민주정치를 하며 공산당을 포섭하려 했는데도 북측에서는 오로지 “강제노동을 시행하

62) 김송, 「영원히 사는 것」, 『한국문학전집 26』, (민중서관, 1959), p. 10.

63) 위의 책, p. 54.

64) 위의 책, p. 16.

고 군대를 확충하고 소련에서 무기를 수입”하면서 남한 침략을 계획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북한에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써 객관성과 거리가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당시 남한에서 민주정치를 하며 공산당을 포섭하려 하였다는 것은 남한의 현실에 대한 지나친 미화이다. 더욱이 당시 정권에서 북진통일론을 내세우기도 했던 사실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예를 보자.

“우리 겨레가 당파싸움을 하고 모리사업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지난 사 오 년 동안 북한 공산당은 전쟁준비를 했던 것이요. 쌀을 공출시키고 강제노동을 시행하고 또한 군대를 확충하고 소련에서 무기를 수입하였지요. 남한에서는 소위 민주정치라 하여 공산당을 포섭하고 남북협상(南北協商)만 찾는 동안에 저희들은 남한 침략을 계획하였오. 우리가 꿈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이에 저이들은 목을 찌르려고 비수를 갈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몰랐던 것이요.”⁶⁵⁾

남한에서는 평화적으로 남북협상에 임하면서 “꿈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이에 저이들은 목을 찌르려고 비수를 갈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옳고 ‘저들’은 그르다는 식의 적과 동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냉전적 인식의 틀 속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전쟁이나 분단현실에 대한 시각이 편협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염상섭의 「동기」는 해방 직후에서 한국전쟁 후까지의 이야기로, ‘학수’(형) 내외와 ‘정수’(아우) 내외가 이념의 다름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양상을 그린 것이다. 여기서 ‘학수’의 역사 인식을 살펴보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이 아닌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이라는 식의 왜곡된 인식임이 나타난다. 이러한 ‘학수’의 인식은 당시 정권에서 조장한 냉전적 인식이다. 이것은 당시 자신들의 입장을 민족주의라고 말하던 이승만 정권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때로 말하면 「쏘련」의 약소민족 정책에 편승(便乘)하여 독립운동자는 공산주의자를 이용하려 하였고, 공산당은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돕는 체하고 적화에 착수하는 때이었다. 그러니, 민족주의자인 학수는 공산주의는 싫어해도 그리 아우를 나무래는 마음은 없었다.

(...) 그때 그 광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는 악수할 수 없

65) 위의 책, p. 22.

다는 의사표시 같기도 하였던 것이다.⁶⁶⁾

김송의 「영원히 사는 것」에서도 그러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이라는 왜곡된 인식의 경향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다음은 이 작품의 여주인공 '나미'의 생각이다.

주몽일은 자기의 적이다. 사상적으로 주몽일은 공산주의자요, 자기는 이형철과 같은 노선을 지키고 있다. 즉 민족을 토대로 한 민족주의자다. 주몽일은 민족성을 말살하고 소련 연방주의를 지향하는 자이다.⁶⁷⁾

여기에서의 소련관 또는 공산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50년대 지식인들의 냉전의식과 그대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서도 살펴 보았듯이 당시 소련관은 독자성과 특수주의는 용인되지 않고 민족의 역사적인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민족소멸론, 공산주의 국가를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지 않는 진영론에 의거하고 있다. 결국 다른 공산주의 국가를 소련의 위성국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냉전의식은 한반도에서의 미소 대립으로 야기되는 국내체제적 제약, 전쟁 체험으로 인해 증폭된 분단 체제와 양 진영관으로부터 오는 제약, 민중의 요구를 정권에서 무마시키기 위함에서 비롯되는 국내체제적 제약 등으로 인해 생성되었음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50년대 구세대 소설의 전쟁관과 분단현실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시각을 견지하지 못하고 주관적이고 추상적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적'과 '동지'를 분명히 하는 냉전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반공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현실 인식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50년대 구세대 작가들의 소설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특히 사회적 분위기와 제약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고 작가의 성향이나 의식도 부분적으로 그러한 경향에 일조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좌·우익인물들의 전쟁관과 분단 인식에 대해서는 인물 설정의 도식성을 다룬 다음 절에서 좀더 부연해 설명하기로 한다.

66) 염상섭, 「동기」, 『사상계』1959.8월호, p.351.

67) 김송 「영원히 사는 것」, 앞의 책, p.221.

2) 사회 변혁에 대한 인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0년대 구세대 소설에서 전쟁관과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은 냉전인식 혹은 반공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토지개혁 등 사회 변혁에 대한 인식에서도 그대로 연결된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는 해방 직후에서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있었던 북한의 토지개혁을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 사항이라 볼 수 있는 토지개혁 문제를 지주의 입장에서 서술함으로써 현실을 추상화시키고 있다. 지주의 눈으로 토지개혁을 바라본 것은 작가가 월남 이전에 북한에서 지주 계급에 속해 있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카인의 후예」의 추상적 현실 인식은 같은 시기의 북한의 토지 개혁을 다룬 월북한 구세대의 소설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이태준의 「농토」('47)라든가, 이기영의 「땅」('48)등과 비교해 볼 때 토지개혁에 대한 시각이 매우 대조적이다. 「농토」와 「땅」에서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토지개혁 과정이 매우 역동성 있게 그려져 있어 긍정적 시각이다.

50년대 소설에서의 작중인물들의 공통점으로 역사의식의 결핍을 지적할 수 있다. 좌익이건 우익이건 마찬가지다. 대개 현실에 영합하는 인물이 많다. 이는 추상적 현실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카인의 후예」만이 아니라 황순원의 다른 작품인 「내 고향 사람들」에서의 토지개혁에 대한 인식이나 일제에 대한 인식 등에서 그런 점을 읽을 수 있다.

(...)어디 숨었다가 붙들려서 탄광이나 군수공장으로 끌려가는 것보다 깨끗이 군대로 나가는 편이 낫다는 게 김구장의 주장이었다는 것이다.

(...)아들에게 학도병 나가기를 권한 사고방식은 김구장 자신의 법도있는 생활에서 나온 일면이라고 나는 생각했다.⁶⁸⁾

68) 황순원, 「내 고향 사람들」, 『황순원문학 전집 4』(문학과 지성사, 1982), p. 175.

(...) 돌담 쌓기에 넉넉한 돌이 모이었다. 그런데도 돌담은 언제까지나 둘러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 수수깡바자라도 갈아야 할 형편이었다. 그것마저 그대로였다. 도섭영감이 나서서 해 주어야 할 터인데 해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즈음 벌써 소작료는 사륙제니, 삼칠제니 하고, 지주에게 불리한 조건만이 떠돌고 있었다.

그것이 요즘에 와선 도섭영감이 훈네 집 울타리는 고사하고 훈과 대면하는 것조차 꺼리는 듯, 짐짓 제편에서 외면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 이제 토지개혁이 실시되어 지주의 토지를 모조리 몰수해가지고 농민에게 무상분배를 한다는 말이 이 가락골 마을에도 떠들어오자부터의 일이었다.

훈은 모든 것을 세월의 탓이라 했다.⁶⁹⁾

‘내 고향 사람들’의 ‘김구장’은 자신의 아들이 징용을 피해 숨었다가 붙들리는 것보다 일제의 학도병으로 ‘깨끗이’ 나가는 게 좋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황순원은 그같이 아들에게 학도병 입대를 권하는 ‘김구장’의 사고방식을 “법도있는 생활에서 나온 일면”으로 묘사하고 있다. ‘카인의 후예’의 ‘박훈’은 토지개혁을 지주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아울러 그는 사회 개혁의 제반 현상을 단지 ‘세월의 탓’으로 치부해 버린다. 사회개혁으로 초래되는 일련의 현상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려 하지 않고 막연한 인식으로 ‘추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50년대 구세대의 소설에서는 우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좌익인물의 경우도 토지개혁에 대한 인식을 지극히 이기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된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 역시 추상화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좌·우익 인물의 토지개혁에 대한 인식의 구체적 논의는 인물창조의 도식성에 대해 다룬 다음 절에서 부연 설명하겠다.

염상섭의 ‘이합’에서는 해방이 되자 집안일은 재껴두고 싸돌아다니는 아내의 행동을 보며 사회의 변화를 영 달가워하지 않는 주인공 ‘장한’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흥! 삼천만이 해방은 되었는데 여편네만 해방이 못되어서 걱정한 게로군?”
장한이는 어이가 없고 울화가 터진다는 듯이 비꼬아 본다. (...)
‘네까짓게 그래두 제 얼굴 값을 하느라구 이러는 거냐?’

69) 황순원, 「카인의 후예」, 『황순원문학 전집 6』(문학과 지성사, 1981), pp. 256-257.

장한이는 무심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흥, 자유해방이 좋기도 좋다. 남녀평등, 여권확장, 만세다!”⁷⁰⁾

이 작품에서 아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추상적으로만 묘사되는 아내의 행동에 대해 ‘장한’은 집안일을 등한시한 채 설치고 다닌다는 식으로만 인식하면서 그것을 비꼬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50년대 구세대의 소설들은 사회변혁의 제반 현상을 개인이나 주변적인 문제로만 결부시키면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즉, ‘추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항목에서 살펴본 사회 변혁에 대한 인식은 다른 것과는 달리 사회적인 제약이나 영향보다는 전기적 사실이나 사상 등 작가의 성향에 더 많이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인물 창조의 도식성

고대소설에서 주제에 가까웠던 작중인물은 현대소설에 와서 그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축소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여전히 소설의 구조를 살피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현대적인 소설 기법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50년대의 작품에서 작중인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50년대 구세대의 작품에서 인물 창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은 당대 소설의 특성을 찾아내는 의미있는 일이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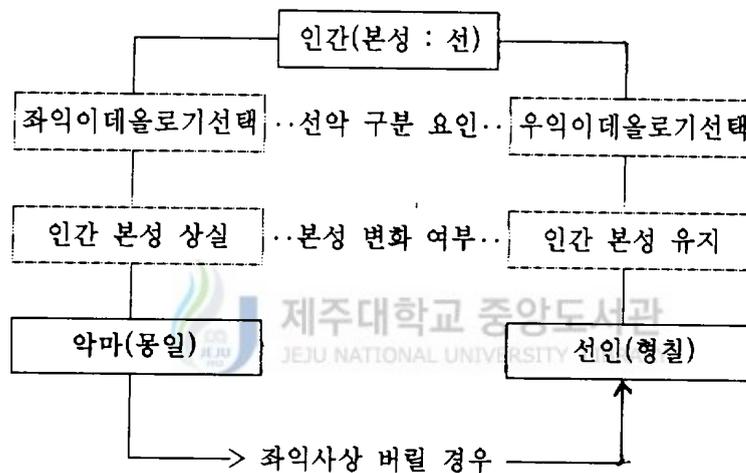
50년대 구세대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의 하나는 도식적이고 의도적인 인물 창조의 방식에 있다. 즉 선인과 악인을 미리부터 구별하여 좌익은 악인으로, 우익은 선인으로 도식화하는 경향을 띤 것이다. 이는 당시 소설에서 리얼리티의 파괴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도식적이고 의도적인 인물 창조는 반공이데올로기 수용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과 악을 극명히 대비시켜 파악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한 예다.

70) 염상섭, 「이합」, 『염상섭문학전집10』(민음사, 1987), p.102.

주몽일은 인간이다. 형철이도 인간이다. 인간 주몽일은 악마다. 인간 형철은 선인(善人)이다. 그러나 주몽일은 사상의 도구가 되어서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선인이 되지 못했다. 인간의 본성인 선을 개조한 것이다. 즉 인간으로서의 주몽일은 사상의 노예가 되고 만 것이다.⁷¹⁾

여기서의 사상은 물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몽일’과 ‘형철’ 사이에는 단지 사상의 차이만으로 인해 선인과 악인으로 명확히 대비되고 있다. 공산주의 사상을 선택한 ‘몽일’은 사상의 도구이자 노예가 되어 인간성을 잃어 버렸다. 이 두 부류 인물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다.



<그림 : 이데올로기 선택에 따른 작중인물의 도식적 창조 양상>

인간은 본디 선인이지만 좌익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면 인간의 본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악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좌익 이데올로기를 선택해 악인이 된 이들도 좌익 이데올로기만 버리면 인간 본성을 되찾아 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71) 김송, 「영원히 사는 것」, 앞의 책, p.255.

다. 이같은 도식의 양상은 50년대 소설 전반에 걸쳐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면 이같은 도식의 양상이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자. 이런 도식화의 양상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므로 좌익 인물의 경우와 우익인물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좌익인물의 부정적 도식화

앞에서 언급했듯이 50년대 구세대 소설에서 좌익인물들은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거의 예외가 없다. 출생 신분이나 성장 배경, 사상 선택의 요인, 그 행위 등을 살펴 보면 부정적으로 도식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좌익인물의 부류에는 이념적 인물도 있고 비이념적 인물도 있다. 즉, 공산주의에 대한 뚜렷한 신념이나 이념, 이론적 체계가 없는 비이념적 인물도 있다는 것이다.⁷²⁾ 여기서는 좌익사상에 투철하지 않더라도 좌익에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좌경적 인물들까지 포함해 다루겠다.

염상섭의 「동기」라는 작품에서 좌익인물로 등장하는 '정수'(아우)는 '불안덩어리'⁷³⁾, 즉 화를 몰고 다니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부정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박영준의 「지열」에서 '유차백'도 화근덩어리다. "유차백 한 사람만 없으면 동네는 무사할 텐데!"⁷⁴⁾ 하고 인식하는 것들이 그것을 말해 준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서 좌익인물로 등장하는 '도섭 영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벌써 뱀이 나올 때가 됐던가.

가 보니, 과연 뱀 한 마리가 마른 잔디 새에 엮디어 있었다. 검은 몸에 붉은 점이 알록달록하게 박힌 놈이었다. (...)

'이놈은 언제 봐두.....'

혁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들멩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왔다. 얼마 전에 혁 자가 들고 올라온 비석 조각이었다.

뱀을 향해 들멩이를 내리쳤다. 꿈틀하고 허리를 꼬았다. 그러는 허리 한 중동

72) 임현영, 「분단기의 인간상」,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한길사, 1987), p. 214 참조.

73) 염상섭, 「동기」, 앞의 책, p. 353.

74) 박영준, 「지열」, 『한국전쟁문학전집 4』(미문출판사, 1969), p. 35.

에 살이 떨어져 피가 내배기 시작했다.

혁이 다시 비석 조각을 들어 이번에는 뱀의 대가리를 노리고 내리쳤다. 대번에 대강이가 으스스리고 말았다.

‘이제야 다시 살아나디 못하겠다.’

그러면서도 혁은 다시한번 비석 조각을 집어 대가리를 내리쳤다.

‘정말루 뱀은 깨개 죽에 없애야디.’⁷⁵⁾

여기서의 뱀은 곧 ‘도섭 영감’의 이미지와 통한다. ‘혁’이 깨어진 비석 조각(도섭 영감이 깨부순 ‘박훈’ 아버지(‘혁’의 삼촌) 비석의 조각임)으로 흉물스런 뱀을 대강이가 으스스리도록 내리쳤다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뱀처럼 흉물스런(부정적인) 좌익에 대한 보복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다. 즉, 좌익들은 살아나지 못하도록 죽여 없애야 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서의 ‘개털오바’, 김송의 「영원히 사는 것」에서의 ‘우승진’, ‘주몽일’의 경우, 염상섭의 「취우」에서의 좌익인물인 ‘강순제의 전남편’의 경우도 모두 부정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 인물이 좌익이면 “그가 신봉하는 이데올로기도 부정적이고 그런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인간은 인간성마저 부정적으로 그려졌던”⁷⁶⁾ 것이다. 물론 당시 소설에서 이처럼 좌익인물이라면 상황을 불문하고 부정적 인물로 묘사하는 도식성을 띤 것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이었다. 좀더 구체적인 양상을 신분과 성장배경, 사상선택의 이유, 무모한 행동의 회화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자.



(1) 좌익인물의 신분과 성장 배경

좌익인물의 경우 대개 신분상으로는 마름, 소작인 등의 하층민이다. 따라서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무지한 인물이 대부분이다. 무식자층인 것이다. 반면에 지식인이면서 좌익인 인물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장교로 입대한 인민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일도 드물다.

당시 소설에서 좌익인물은 곧 무지한 인물이라는 도식성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75) 황순원, 「카인의 후예」, 앞의 책, pp. 347-348.

76) 김영화, 「반상의식의 극복」, 『분단상황과 문학』(국학자료원, 1992), p. 82.

다고 본다. 이는 물론 좌익 이데올로기 자체가 원래 하층인물 중심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의도적인 인물 창조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무식자층에서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릇된 인식으로 좌익을 선택하고 있음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무식자층들의 좌익 활동에 대해 다룰 때 이데올로기 문제나 사회 현실에 대한 깊이있는 언급이 나타날 리가 없다. 그냥 막연히 '나쁘다', '악하다'는 식으로만 관념적으로 인식되는 차원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무지한 좌익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는 예를 우선 염상섭의 「동기」에서부터 살펴 보자.

(...) 인제는 저의 세상 — 공산천하가 오리라고 활개를 치며 뿔내는 무식한 단견(短見)

이렇거나 저렇거나 중학교도 변변히 졸업못한 정수가 공산주의 이론을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공연히 남의 춤에 놀아서 맹신적(盲信的)망동을 하고 호된 고생만 하였거나 하는 생각으로 형은 아우를 멸시하는 것도 사실이었다.⁷⁷⁾

즉, 중학교도 못 나온 아무 것도 모르는 자(정수)가 공산주의를 맹신하고 경거망동하며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남의 춤에 놀아난다고 보았다. 그것은 '정수'가 지혜가 모자라고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긴다. 그래서 '학수'는 '정수'를 '멸시'하고 있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나 「학」 등에서도 좌익은 무지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카인의 후예」의 '도섭 영감'은 뭐든지 시키는대로 다 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좌익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물인 '개털오바'는 '도섭 영감'의 그같은 무지함을 교묘히 이용한다.

“동무, 내 동무이 과거르 들추지 양이 하겠소. 그 대신 앞으로 일 많이 하오.”
 “선생이 하라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디오. 말씀만 하십시오.”
 도섭영감은 이십여년 동안이나 훈네 마름으로 있던 게 이제와서는 풀리는 것이었다.
 “먼저 지주와의 관계르 깨끗이 청산하오.”
 “벌써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네다.”

77) 염상섭, 「동기」, 앞의 책, p. 351.

“앞으루 그걸 행동으루 보이오.”

“선생이 하라는 대루 무슨 일이든지 다 하리다.”⁷⁸⁾

“변명을 할려구두 않는다. 내가 제일 빈농의 자식인데다가 근농꾼이라구 해서 농민동맹부위원장 됐든 게 죽을 죄라면 하는 수 없는 거구, 나는 예나 이제 나 땅 파먹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⁷⁹⁾

투철한 좌익이데올로기를 가졌다기보다는 좌경적 가담자 또는 동조자라 할 수 있는 ‘도섭 영감’은 지주인 ‘박훈’네 마름으로 20년 동안 충실히 일해 온 하층민이다. 「학」의 ‘덕재’는 빈농의 자식으로서 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이 마을을 점령하자 농민동맹부위원장이 됐지만, 본디 ‘땅 파먹을 재주’밖에 없다. 가난한 농사꾼이라 해서 강제로 농민동맹부위원장을 시키니 좌경적 가담자가 되었던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이처럼 좌경적 인물인 이들은 신분상으로 하층민이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음이 나타나고 있다.

박영준의 「지열」은 전쟁이 터져 인공치하가 되자 고향(고향도 인공 치하였음)을 찾아간 주인공 ‘최명혜’가 다시 국군이 그 마을을 탈환할 때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여기에서도 인민위원장 ‘민광희’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설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공산주의두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글쎄요.”

명혜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인민위원장까지 되기는 했으나 공산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민광희다.

죄없는 사람이면 어떤 세상에서나 살 수 있다는 어수룩한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⁸⁰⁾

‘민광희’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죄없는 사람이면 어떤 세상에서나 살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에 인민위원장이 된 인물이다. 면의 인민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조차 ‘어수룩한 사상’을 갖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78) 황순원, 「카인의 후예」, 앞의 책, p.241.

79) 황순원, 「학」, 「황순원전집3」(문학과지성사, 1981), p. 66.

80) 박영준, 「지열」, 앞의 책, p.36.

이처럼 50년대 소설에서 하층민이면서 무지한 인물이 주로 좌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방 직후의 지식인 중 상당수가 진보적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인물의 전형성이 확보되지 못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물론 당시 좌익 중에 신분상 하층민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적, 충동적으로 좌익 쪽에 기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50년대 구세대 소설에선 그들이 무식쟁이로서 아무 것도 모르고 부화뇌동한다는 식으로만 그려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는 80년대 소설인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비교해 볼 때 더 명백해진다. 나주벌 대지주 송진사대 가북 출신이면서 민중적 빨치산 전사로 활약하는 ‘하대치’와 같은 인물이 50년대 구세대 소설에선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하대치’는 하층민 출신이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으면서도 끝까지 정열적으로 투쟁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에 비해, 50년대 구세대 소설에서의 하층민 출신 좌익들은 무식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부화뇌동한다는 식으로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도식적 인물 창조가 되고 있다.

분단 현실 또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지식인의 입장으로 바라보았을 때 좀더 명확하고 냉철하게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 좌익인물을 다루더라도 지도층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 50년대 소설의 좌익인물이 하층민이면서 못배운 계층이 많았다는 사실은 현실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추상화시키는 장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소설에서는 하층민 출신이면서 제대로 배운 인물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태백산맥」의 좌익인물 ‘염상진’은 숯장수의 아들이면서도 사범학교에 진학한 하층민 출신의 지식인으로 등장하는데, 50년대 구세대의 소설엔 그런 부류의 인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나마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는 지식인의 경우도 공산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설치고 다닌다고 인식하고 있다.

“진짜지? 얼치긴지? 하지만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구, 얼치기가 더 말썽이요, 더 무섭거든요.”

순채는 자기 남편도 얼치기였기 때문에 중학교 선생 노릇이나 다소곳이 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책 한 권도 보는 것을 못 봤는데 남북협상이니 뭐니 하고

겉몸이 달아 다니다가 살림도 계집도 다 버리고 넘어간 것이라고 코웃음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평양 가서 중학교 선생 자리라도 얻어 걸렸는지, 어떤 꼴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신세가 가엾기도 하다.⁸¹⁾

‘순제 남편’은 그 직업이 중학교 교사로서 지식인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지식인이면서도 공산주의에 관한 서적도 한 권 안 보고 ‘빨갱이’가 된 ‘얼치기’다. 그는 중학교 교사로서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얼치기로 좌익 활동을 하다가 월북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인 ‘순제’가 보기에는 코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는 바처럼 50년대 구세대의 소설에서 좌익인물들의 신분은 하층민이며 성장배경을 보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지한 인물로서 환경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인물 형상화 양상을 놓고 볼 때, 그러한 것들은 좌익을 부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도식적 장치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당대 소설에서 하층민이면서 무식한 인물이라는 조건은 좌익이데올로기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2) 좌익인물의 사상 선택 요인

좌익이 된 인물의 경우 사상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신분과 환경의 열세에 대한 보상심리에 의한 것, 영웅주의에 의한 것, 시류에 편승한 기회주의적인 것, 애정관계에 의한 것, 개인적 욕심에 의한 것 등의 경우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은 대개의 경우 감상적, 충동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독립투쟁과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일제시대 독립운동 세력 중 상당수가 좌익 세력이었음에 비취볼 때,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음과 아울러 전형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본질상 내포하고 있는 강한 현실지향성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50년대 소설은 극도로 추상화된 관념적 사상 선택의 양상을 구현하고 있다”⁸²⁾는 것이다.

81) 염상섭, 「취우」, 『염상섭문학전집 7』(민음사, 1987), pp. 86-87.

82) 차원현, 앞의 논문, p. 120.

우선 신분과 환경의 열세에 대한 보상심리로 좌익을 선택한 경우는 이미 바로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카인의 후예」의 '도섭 영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층민 출신인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적, 환경적 열세를 하층민에 기저를 둔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는 좌익이데올로기를 택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한다.⁸³⁾

영웅주의에 의한 좌익 선택의 경우는 박영준의 「빨치산」에 나타난다. 이 작품은 '추일'(김명구)이 사회주의자로서 법과대학 2학년을 중퇴하고 월북하여 강동정치학교 군사부에서 혁명 투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빨치산으로 전쟁에 참가하여 싸우다 포로가 된 후, 그 심경을 밝히는 고백체의 소설이다. 여기서의 '추일'의 경우는 영웅주의로 인해 좌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온다.

나는 서울 대학교 법과 대학 이년을 중퇴하고 이북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나도 <레닌>이나 <스탈린>처럼 유명해질 수가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정당한 이론을 공부하여 혁명 사업에 참가하고, 또 지도적 역할을 한다면 <레닌>이나 <스탈린>처럼 못 되리라는 법은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⁸⁴⁾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추일'의 좌익 선택은 역사나 현실의 자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레닌'이나 '스탈린'처럼 유명해지기 위함이다. 그의 사회 또는 가족사적 관계 등 다른 요인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가 공산주의 이론 공부와 혁명 투쟁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영웅이 되기 위한 행위가 되고 있다. 좌익 사상을 선택하는 요인이 피상적으로만 그려져, 현실적인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시류에 편승하여 기회주의적으로 좌익을 선택하는 인물은 김송의 「영원히 사는 것」에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근수'는 청년대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에게 총만 주면 공산당놈들을 단번에 쳐부수겠다고 떠들다가 인공치하가 되자 하루아침에 붉은 완장을 차고 다닌다.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근수'의 행위에 대해 왜 그

83) 신분과 환경의 열세에 대한 보상심리로 좌익을 선택하는 양상은 신세대 작가의 작품에 더 많이 나타난다. 정한숙 「고추잠자리」의 '바우', 「고가」의 '태석', 강용준 「철조망」의 '순구', 광학송 「바윗골」의 '종기' 등이 그들이다.

84) 박영준, 「빨치산」, 『광복30년문학전집3』(정음사, 1975), p.179.

왔는지는 작품 속에서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역시 별다른 성찰 없이 좌익을 선택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애정 관계에 의해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는 인물 양상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사상 선택의 요인이 이데올로기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고 탐구한 결과로써 행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념적 비판의 의도가 드러나는 양상이다. 김동리의 「자유의 역사」에서 '김순실(양옥희)'이 좌익을 선택한 이유는 애정 관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좌익이었던가 봐요.”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좌우익이 무엇인지 아직 그 윤곽도 뚜렷하게 알려지기 전에, 박기혁의 말만 듣고 좌익 단체에 가입을 했던 것이 된다.⁸⁵⁾

'순실'은 좌우익이 무엇인지 그 윤곽도 모르는 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박기혁'의 말만 듣고 좌익을 선택하여 좌익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념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이 제기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좌익 이데올로기를 선택한 이유가 사랑하던 남자 때문이라는 것, 즉 애정 관계에 의한 이념 선택은 최정희의 「정적일순」에서도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정채혜'는 국민학교 교사이면서도 사랑하는 남자의 말만 믿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빨치산이 되었음이 나타난다.



“사랑하던 남자가 옥이팔 때 절더러 빨치산으로 들어가자고 그러잖아요. 나야 뭘 압니까? 그때까지 국민학교 선생노릇만 했지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걸 통 몰랐거든요. 그 남자도 나하구 비슷했는데 그만 그렇게 됐어요.”⁸⁶⁾

개인적인 욕심이 좌익의 행동과 정책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많다. 왜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는가 하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서술은 거의 없다. 토지개혁의 경우 농민들이 그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른 토지개혁의 당위성에 있기보다는 지극히 사소한 욕심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

85) 김동리, 「자유의 역사」, 앞의 책, p. 305.

86) 최정희, 「정적일순」, (『현대문학』 1955.10월호), p. 23.

다. 「카인의 후예」에 나타난 '탄실이 아버지'의 경우를 보자.

순천에선가 농민대회가 있는 날 일이었다. 점심 때가 되어 각 동네 대표들에게 식권을 나누어 주었다. 종이 관계로 흰 종지와 푸른 종이 두 가지가 있었다. 거기에 익살꾼이 하나 있다가 장난을 쳤다. 흰 종잇조각 받은 사람은 밭을 타고, 파란 종잇조각을 받은 사람은 논을 타기로 했다고. 그러자 흰 종잇조각 받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섰다. 누군 논을 주고 누군 밭만 주느냐고.

탄실이 아버지는 오늘 자기네가 땅을 나눠받는 일이 있더라도 공연히 앞장서서 그러지 않으리라 마음 먹었다. 그러다가 창피한 꼴을 당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나 이런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드는 것이었다. 자기가 옷골에 가 있는 동안에 동네사람들이 저희들끼리만 좋은 땅을 나눠가지면 어쩌나. 이왕 나눠받는 바엔 남보다 나쁜 땅을 받아서는 안 될 텐데? 그러나 만일 이렇게 제 앞차지만 하는 놈이 있으면 당장 이걸로 그놈의 대갈통을! 손에 잡은 쇠스랑 자루를 한번 부드득 그러쥐었다.⁸⁷⁾

이처럼 좌익인물은 현실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토지개혁에 대한 좌익의 인식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이다. 토지개혁의 의의나 본질은 희석된 채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집착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게다가 그들의 행위는 무식함으로 인해 회화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군인들 즉 인민군의 경우는 대체로 장교보다는 사병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사병들은 거의 타의에 의해 전장에 끌려오게 된다. 뒤에 다루겠지만, 국군에 애국심의 발로로 입대하는 일이 많은 것과는 달리, 인민군은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보다는 강제적으로 끌려와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이었던 아니든 간에 이는 공산주의의 몰인정과 만행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용서하십시오. 전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

“진정이올시다. 도망을 칠래두 독전대(督戰隊)가 등뒤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부득이 싸울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소년은 눈물까지 흘린다. 그리고는 그 발목을 조사해 보라고 앉은뱅이 걸음을 치던 한쪽 발을 내놓는다. 발목엔 밧줄같은 것으로 비끄러맨 자국이 있고, 그 구멍에선 붉은 피가 흐르다 못해 선지가 되어 흙과 얽혀 있다.⁸⁸⁾

87) 황순원, 「카인의 후예」, 앞의 책, pp. 332-333.

88) 김송, 「영원히 사는 것」, 앞의 책, p. 137.

김동리의 「자유의 역사」에서 '영옥'은 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의 많은 우익 계통 사람들과 이북에서 넘어온 좌익계 남녀들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처지가 된다. 그녀는 이데올로기가 무언지도 알지 못하는 채 얼키고 설키며 지내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좌익의 앞잡이가 되었다. 연합군의 9·28 서울 탈환과 함께 인민군과 과거 연고자들을 따라 월북할 차비를 하고 그 속에 뛰어들었다가, 북으로 가던 도중 혼자 도망을 쳐서 서울로 돌아온다. '인식'과 '윤수'들을 못잊어 그냥 서울서 죽을 각오를 하고 돌아왔다고 하였다. 물론 '영옥'의 선택은 표면적으로는 이데올로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사귀어온 인간 관계가 그녀로 하여금 그러한 모험적인 행동을 감행하게 만들었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은근히 남한 사회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좌익인물의 무모한 행동의 회화화와 뉘우침

앞에서 좌익인물들은 대체로 하층민이면서 무지한 인물이며, 감상적이고 충동적으로 좌익이데올로기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아 보았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들의 행동은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좌익인물들은 대체로 폭력적으로 무모하게 행동하며, 죽음이라는 비극적 종말을 맞기도 한다. 그들은 “이데올로기를 등에 업고 비인도적, 반인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거나 아니면 백정이었을 때 또는 소작인이었을 때 받았던 수모를 양갓뎠하는 일을 저지르는 인간상”⁸⁹⁾으로 묘사된다. 나중에는 자신이 좌익사상을 택해 행동한 것에 대해 뉘우치고 전향하는 일도 많다. 좌익이었다가 잘못을 뉘우치는 작품은 많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는 것도 50년대 소설의 한 특성이다. 특히 50년대 구세대 소설들은 좌익을 풍자하고 조소하기 위해 회화화⁹⁰⁾

89) 김영화, 앞의 글, p.81.

90) 회화화(Caricature)란 인물의 외모나 성격 혹은 사건 자체를 의도적으로 우수 팽스럽게 묘사함으로써 대상을 풍자하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회화화는, 진지한 주제를 일부러 희극적인 만화풍으로 그려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문학작품이나 극적 연출을 의미하는 희작(burlesque)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므로 회화화는 인물의 모습이나 성격 뿐 아니라 주제까지 우습게 풍자하는 희작과 달리, 대상 자체를 풍자하고 조소하기 위하여 대상의 일부나 전체 혹은 대상의 성격을 과장, 축

방식을 즐겨 사용했다. 따라서 좌익의 행위나 좌익인물들의 성격은 과장하거나 축소 또는 왜곡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염상섭의 「취우」, 김송의 「영원히 사는 것」 등에 나타난 회화화 양상을 보면, 그런 의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벌써 몇 대째 수많은 농민의 피르 착취해 온 반동 지주 박용제!”

“웁소! 반동 지주 박용제를 타도하자!”

번쩍 도끼를 쳐들며 고향치는 사람이 있었다. 도섭영감이었다. 무엇에 놀란 듯한 얼굴들이 모두 그리로 쓸렸다. 뒤의 사람은 발돋움까지 하고 기웃거렸다.

개털오바청년이 단 위에서 도섭 영감을 한 번 힐끗 내려다보았다.

얼핏 도섭 영감이 도끼를 내렸다. 아차 내가 너무 빨랐구나 하는 낮빛이었다.⁹¹⁾

“응, 저게 김일성 군야? 저런, 한참 자랄 애송이들을 몰아가지구…….” 하며 순제는, 이 편을 향하여 로오타리 앞에 총을 세우고 맥없이 보초를 섰는 병정을 건너다 보며 혀를 찼다. 열 일곱 여덟 쯤 된 새까맣게 타고 뺨뺨이 마른 어린애가 허기가 졌는지 졸린 눈으로 멍하니, 툭툭면 쓰러질 듯이 이쪽을 바라보고 섰다.

그물[網] 뜨개비를 씌운 모자를 머리에 얹은 것이 눈서투를 뿐이지, 예전에 활동사진에서 본, 보따리에 절무를 매달아서 걸머진 중국병정과 똑 같았다. 흙투성이가 된 구랄만한 국방색 바지 저고리에 목달이 운동화를 신은 짧은 총알을 가졌으니 군인이랄까? 저런 것들에게 국군이 밀리다니, 순제는 발을 구르고 싶었다.⁹²⁾

흰 양복바지 한옆에 녹색줄이 가고, 역시 흰 모자에 녹색 테두리를 한 내무서원이 꺼멍고 번질번질한 넓적코를 벌름거리면서 호각을 불고 야단이다.⁹³⁾

연설이 다 끝난 줄 알고 도끼를 쳐들며 구호를 외쳤다가 당황해 하는 도섭영감의 모습, “새까맣게 타고 뺨뺨이 마른 어린애가 허기가 졌는지 졸린 눈으로 멍하

소, 왜곡하는 성향이 강하다. 아울러 회화화에서 인물의 외양이나 성격을 의도적으로 우습게 만드는 묘사는 등장인물의 물인정과 포악한 심성, 히스테리와 이중성격을 강하게 암시하면서 결국 대상 자체를 풍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한용환, 「소설학사전」(고려원, 1992), pp. 482-484 참조.

91) 황순원, 「카인의 후예」, 앞의 책, pp. 326-327.

92) 염상섭, 「취우」, 앞의 책, p. 40.

93) 김송, 「영원히 사는 것」, 앞의 책, p. 69.

니 특 치면 쓰러질 듯이” 서 있다거나 “흙투성이가 된 구랄만한 국방색 바지 저 고리에 목달이 운동화를 신은 풀”로 묘사된 인민군의 모습, “꺼멧고 번질번질한 넓적코를 벌름거리면서 호각을 불고 야단”인 내무서원의 행동 등은 좌익인물에 대한 회화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결같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이외에도 「카인의 후예」에서는 좌익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다음의 예에서 보면 ‘개털오바’⁹⁴⁾로 상징되는 좌익의 얘기가 ‘개소리’ 같다는 작가의 의도가 나타남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개털오바’의 연설에 대한 엄숙성을 해치기 위한 장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털오바청년이 손에 권 종이를 펴 가지고,
“결정서! 우리는 농민대회 결의로 다음과 같은 결정서를 반동 지주 박훈에게 통고함!”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운듯 청년은 읽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도섭영감이 얼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가 들맹이를 하나 집어 던졌다. 그러나 개는 훌쩍 저만큼 달아나 돌아서더니 그냥 짖어대는 것이었다. (...)
“이 쌍놈의 개새끼, 너두 오늘 죽디 못해 이러니? 죽디 못해 이래?”⁹⁵⁾

말하자면 ‘박훈’에 대해 반동지주로 규정하는 결정서를 읽는 순간 개짖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는 것은 좌익들의 그 결정서 내용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좌익인물의 행위는 그들이 대의명분으로 주장하는 ‘민족해방’의 실천에 있기보다는 지극히 사소한 것에 욕심을 내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많다. 김송의 「영원히 사는 것」에는 다음과 같이 좌익인물들의 알팍한 행위가 그려지고 있다. ‘복수 아버지’와 ‘우승진’의 경우를 보자.

나무 꺾꽂이 앞에는 하얀 노-타이에다가 하얀 여름바지를 입고 번쩍번쩍하는 구두를 신은 신사가 팔에는 붉은 완장을 붙이고 서서 울긋불긋한 비단 이불을

94) ‘개털오바’란 지칭을 두고 ‘아예 이름도 없는 개취급’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논자도 있다. 임현영, 앞의 책, p. 219.

95) 황순원, 「카인의 후예」, 앞의 책, p. 344.

구루마에서 척척 내려놓는 판이었다. 그밖에도 옷보통이 같은 것, 양실에 까는 고급 보료, 라디오, 의복, 병정구두, 쌀가마들이 땅에 버려져 있었다. (...)

“아 — 니 사흘전까지도 복수아버지 단벌바지를 팔아 쌀 샀느니, 단벌 주발을 팔아서 숯을 샀느니 하던 저집이 웬 일이에요?”

“벌써 세 번째 실어온단다. 복수아버지가 인민위원회의 뭐가 되었다나. 그 마누라가 어제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 이날이 꼭 울 줄 알고 복수아버지는 아모 일도 하지 않고 고생을 죽도록 하였노라고 뽐내구 갔단다.”⁹⁶⁾

김정란의 남편, 우승진은 사상적 조류에 부화뇌동하는 회색분자였다. (...) 우승진은 지난 유월 이십 팔일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와서 즉시 동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최고책임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동민들 앞에서 ‘인제는 우리들의 세상이 되었다. 이×× 괴뢰정부에 협력한 반동분자를 철저히 숙청하라’고 지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거의 애국자를 조사해선 내무서에 보고하고, 혹은 의용군 강제 모집에 적극 협력하고, 유산가의 집에 침입하여 쌀과 옷과 가산을 합부로 약탈해다가 인민군에게 바쳤었다.

그리하여 모든 시민들이 전율과 공포와 기아 속에 허덕이던 공산 천하 삼 개월 동안, 그는 얼굴에 기름이 흐르도록 배불리 먹고, 그가 즐기는 술도 양껏 마시고 맘껏 향락했다는 것이다.⁹⁷⁾

인공치하에서의 좌익인물들의 행위를 그리고 있는 위의 인용문들은 그들이 명분상으로 내세운 사회현실의 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가구, 의복, 식량 등을 합부로 약탈하는 등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복수아버지’의 경우는 그런 날을 기다리며 ‘고생을 죽도록’ 했노라고 뽐내기까지 한다. 좌익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날뛰던 좌익인물들은 결국 사상을 버리고 전향하거나 죽음이라는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된다. 박영준의 「용초도 근해」의 ‘성주’는 공산군에 포로로 잡혀 괴뢰군으로 편입된다. 그는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교육을 받고 송환되는 포로에 끼어 공작원으로 남파된 인물이다. 그는 남한에 온 후 곧 좌익사상을 버리게 된다.

“공산주의를 내 버릴테요.”

“왜?”

96) 김승, 「영원히 사는 것」, 앞의 책, p. 33.

97) 위의 책, p.143.

성주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기는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자 얼마 안 있어 소위 해방전사라 하여 괴뢰군에 편입되었던 일 그리고 이년 이상이나 일선에 나가 있다가 포로교환 문제가 나왔을 때 포로수용소로 다시 돌아왔다는 일을 이야기 한 다음

“사실은 괴뢰군 공작원의 임무를 맡아가지구 넘어왔어요. 그렇지만 넘어와 보니 못해먹을 일 같아요. 첫째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 못하겠어요. 좋은 음악도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리운 부모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해두 안 된다. 죽어도 슬퍼해선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먹어요. 그것만두 아닙니다. 우선 사람을 믿지 않는 게 싫어요. 나보구 뭐겠는지 아세요. 만약 명령대로 안 하면 처벌을 한대요. 남한에 있는 빨갱이들을 시켜서 죽인대나요. 아무 욕심두 없이 자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을 왜 믿지 못하고 그런 협박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야 공산주의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나 마찬가지로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제 일만 잘 하면 그뿐이에요.”⁹⁸⁾

공작원으로 남파된 인물치고는 너무 쉽게 공산주의사상을 버리는 인상이 있다. 사상을 포기하는 데에 따르기 마련인 어떤 갈등도 없다. 좋은 음악도 좋아해서는 안 된다, 부모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슬퍼해선 안 된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 등의 공산주의를 버리는 이유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의 갈등이나 번민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회의나 주저, 고뇌의 편린조차 찾아 볼 수 없는 ‘성주’의 전향은 당시 소설에서 관념적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다루고 있음과 동시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대체로 전향한 좌익인물에 대해 작가는 측은한 마음과 동정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박영준의 「빨치산」에서 빨치산 부대장을 지내며 투쟁하다가 전향한 ‘추일’의 경우를 보자.

지금도 꼭 살려달라고 애원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행히 살려준다면 덤으로 얻은 생명이 본전을 때도록 애써 보겠다는 것 뿐입니다. 한 번 잃었던 때문인지 새로 발견한 인간성에 대한 얻어 본 일이 없는 사람보다 몇 배나 강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은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악의 세계에서 탈출했

98) 박영준, 「용초도 근해」, 『전선문학 제7호』, 1953, pp. 70-71.

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죽임을 받는다고 해서 불만을 품지는 않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내 한 목숨을 받아 주십시오.99)

‘추일’은 자신이 좌익사상을 버린 행위를 ‘악의 세계에서 탈출’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공산주의 사회가 인간성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악의 세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좌익사상을 버린 이유라 말한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좌익사상을 갖고 빨치산 생활을 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설사 죽게 된다고 해도 불만을 품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좌익사상을 버리는 것이 곧 ‘악의 사상’을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하던 당시 실정에서 이러한 상황 설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좌익인물의 행동은 회화화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비극적 종말을 맞거나 누우쳐 전향하게 된다. 그것은 좌익인물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이 50년대 구세대의 소설에서 좌익인물의 행동이나 의식이 폄하되어 묘사되는 것은 반공이데올로기 수용의 한 양상으로 보인다.

2) 우익인물의 긍정적 도식화

앞에서 좌익인물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도식화되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반대로 우익인물은 긍정적으로 도식화되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두 부류의 인물을 극단적으로 창조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익인물들의 긍정적 도식화 양상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에 대해 알아 보자. 여기서는 우파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인물만이 아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우경적 인물도 우익인물로 포함시켜 다루고자 한다. 「카인의 후예」의 ‘박훈’, 「도하기」의 ‘선우대위’, 「지열」의 ‘명혜’, 「홍남철수」의 ‘박철’, 「자유의 역사」의 ‘윤수’, 「영원히 사는 것」의 ‘이형철’, ‘최나미’, ‘김이섭’, 「불사신」의 ‘이 중위’, 「내 고향 사람들」의 ‘김 구장’, 「동기」의 ‘학수’ 등이 우익인물에 속한다.

중도적 인물로 설정된 경우도 은근히 우익에 경도되어 있다. 사실 당시 소설에

99) 박영준, 「빨치산」, 앞의 책, p.189.

서 중도적 인물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동리의 「자유의 역사」에서 중도적 인물로 설정된 '인식'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인식'은 학도병으로 징집되었다가 탈출할 때 인연을 맺게 된 중국인 진씨의 영향 등으로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해방이 되어 귀국해서도 그는 무정부주의 성향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 출판사에서 일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출판사의 다른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면서도 좌익 성향이 짙은 것과는 달리 우익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이데올로기의 혼란을 느낀다. 좌익은 기세등등하여 날뛰고 우익은 처형당하는 인공치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자유주의자임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작가가 중도적 인물로 설정한 '인식'은 우편향적인 인물로 귀결되고 있다.

우익인물은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격이 너그러운 것으로 그려진다. 강한 애국심의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군인들, 즉 국군의 경우 적개심을 고취하는 반공주의자들이 대부분이다. 대체로 사병보다는 장교가 많이 등장하는데(사병의 경우는 제대군인으로 주로 등장 — 김동리의 「귀환 장정」 등), 이는 휴머니즘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한다¹⁰⁰⁾고 볼 수 있다. 장교는 시혜적, 군림적, 선민적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준 「피의 능선」의 '원 중위', 「도하기」의 '선우 대위', 「암야」의 '임 대위' 등이 그 대표적 인물들이다.

우익인물들은 대체로 좌익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동기」의 '학수'는 빨갱이 혐오 증세를 보이는데, 이는 작가 염상섭의 시각과 일치하는 듯하다. '학수'는 “생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빨갱이는 자식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는 굳은 생각”¹⁰¹⁾을 갖고 있다.

공산주의 때문에 어머니도 의심해야 하며 어린애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인식, 공산주의는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사람을 기계처럼 부러먹는다는 인식 등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면모가 드러나기도 한다. 다음의 인용문들은 「지열」

100) 주인공이 장교가 많다는 사실은 미국소설과 대조적이다. 미국소설의 주인공은 사병이 장교보다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미국 소설이 핏줄의식은 적지만 휴머니즘적이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한상훈, 「한국전쟁소설의 양상 연구」(서강대 석사논문, 1982), pp. 21-22 참조.

101) 염상섭, 「동기」, 앞의 책, pp. 346-347.

의 주인공 '명혜'의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다.

그래도 명혜는 어머니를 부르지 못했다. 틀림없는 어머니지만 어머니마저 공산주의에 몰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란 어머니까지도 의심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유령이었다.¹⁰²⁾

“공산주의란 사람의 마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기계처럼 부러먹을 것을 꿈꾸고 있는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인정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무시받을 것입니다.(...)”¹⁰³⁾

명혜는 그만 벌떡 일어서서 동수를 부등켜 안았다. 안고는 눈물젖은 눈으로 동수의 뺨을 부비었다.

“어린 것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무서운 빨갱이들! 어린애까지도 무섭게 하는 빨갱이들.”

명혜는 한참 동안이나 동수를 껴안고 울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말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¹⁰⁴⁾

이처럼 우익인물들은 좌익 또는 좌익사상을 ‘무서운 유령’,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사상’, ‘무서운 빨갱이’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좌익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면 우익인물의 구체적인 양상을 신분과 성장, 사상선택 요인, 행로와 기질 등을 통해 살펴보자.



(1) 우익인물의 신분과 성장 배경

앞에서 좌익인물은 주로 하층민이며 제대로 못 배운 무지한 인물임을 살핀 바 있다. 그런 반면 우익인물은 대개 신분이 중산층 이상이며, 학력정도로는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카인의 후예」의 ‘박용제’와 같은 악질지주나 친일파의 경우도 일부 등장하나, 황순원은 박용제의 말로를 측은하게 그림으로써, 동정을 표하고 있다. 「용초도 근해」에서의 ‘혜란’의 가족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102) 박영준, 「지열」, 앞의 책, pp. 15-16.

103) 위의 책, p. 32.

104) 위의 책, p. 71.

지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정희의 「정적일순」에 나오는 '김병목'의 집안에 대한 기술에서도 이같은 점이 드러난다. 고향에서는 몇번제 안 가는 지주였지만 좌익에게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월남해서 그보다는 좀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치하가 되자 땅과 재산을 전부 몰수당했고 아버지는 지주라 해서 시달림을 받다가 종내 감옥에서 죽고 말았다.¹⁰⁵⁾

동네 사람들은 김병목의 집을 '벼락부자'라고 불렀으나 그들이 고향에서 몇번제 안 가는 지주로 살았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였다.¹⁰⁶⁾

우익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인물로 그려진다. 「카인의 후예」의 '박훈', 「도하기」의 '선우 대위', 「홍남 철수」의 '박철', 「자유의 역사」의 '윤수', 「영원히 사는 것」의 '이형철'·'최나미'·'김이섭' 등이 모두 지식인층이다. 이들은 대개가 작품 속에서 작가의 분신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즉, 이들의 신분이나 성장배경은 물론이요 언행이나 시각 등은 곧 작가의 그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우익인물들은 그 성격이 매우 너그럽고 관용을 베풀 줄 안다. 휴머니스트적 기질을 가졌다는 것이다. 황순원의 「내 고향 사람들」은 작가의 40년대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의 '김 구장'은 「카인의 후예」의 '박훈'네를 연상케 한다. 그는 아량과 인정을 베푸는 지주로 그려지고 있다.

그즈음 나는 김구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아주 계량이 떨어져 곤란을 받는 소작인에게는 식량을 꾸어 준다는 것이다. 지주라 자기 앞으로 배당된 공출량을 채하고도 남는 곡식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빈농가에 꾸어준 양식은 다음해 가을에 받는다는 것인데 한 줌도 보태어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⁰⁷⁾

이처럼 우익인물들은 신분과 성장배경, 성격 등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다만, 「카인의 후예」의 '박훈'과 같이 패배주의적 인간상도 드러난다. 그러

105) 박영준, 「용초도 근해」, 앞의 책, p. 66.

106) 최정희, 「정적일순」, (『현대문학』 1955. 9월호), p. 28.

107) 황순원, 「내 고향 사람들」, 앞의 책, p. 174.

나 '박훈'이 부정적 시각으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다. 작가는 '박훈'을 현실 적응력이 부족한 인물로 그리면서도 매우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점을 내세우는 데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2) 우익인물의 사상선택의 요인

우익인물들의 사상선택 요인은 좌익에 대한 보복심리와 우국적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좌익에게 자신 또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거나 충격적인 일을 목격하게 되어 좌익을 혐오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애국적 기질이 발휘되어 우익이 되는 일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익이 된 인물들은 대체로 역사적 인식에 소홀하며, 사상의 보수성을 지닌다.

염상섭의 「동기」에 나오는 형 '학수'는 자신의 집안이 공산당 때문에 몰락하였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동생 내외로 인해 집안 꼴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동생 내외가 좌익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집안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좌익을 싫어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집 가문이 이렇게 되었나? (...) 집안이 안 되느라고 빨갱이 내외의 아우를 두게 된 것이요, 부모인들 알아볼 놈들이냐고, 거론(學論)을 얹고 가만 내버려 뒀던 것이다.¹⁰⁸⁾

박영준의 「용초도 근해」에서 '혜민'이 좌익을 싫어하는 것도 지주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자기 집안의 재산이 모두 '괴뢰군'에게 빼앗기고 아버지마저 감옥에서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그저 싫기만 한 이북'으로 인식된다.

오빠는 괴뢰군에 뽑혀간지 삼년이 되었으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른다. 남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밀리어 천마까지 와서는 어머니가 담배 장사를 해서 지금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해가고 있다.

그저 싫기만 한 이북. 그 이북을 그렇게도 싫어하며 이남으로 넘어가자던 혜

108) 염상섭, 「동기」, 앞의 책, pp. 348-351.

민을 혼자 내버려두고 왔으니 지금쯤 해민은 미치고 말지나 않았을는지.....¹⁰⁹⁾

최정희의 「정적일순」에서 '김병목'의 어머니인 칠십 노파는 공산당들을 불한당으로 인식하는데, 그녀는 이복에 살다 월남한 인물이다. 그녀는 “몹쓸 놈의 불한당들 땀에”하고 줄곧 입속으로 혹은 입밖으로 뇌까리며 다닌다. 노파의 입장에서 그 많던 땅을 토지개혁으로 해서 빼앗기고 어느날 남편까지 몰래 동맥을 끊고 죽었으니, 좌익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염상섭의 「취우」에는 '순제'가 북에서 온 남편을 거부하고 '영식'과 본능에 탐닉하는 행위가 그려진다. 이것은 '순제'의 입장에서 볼 때 '영식'이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미¹¹⁰⁾이기도 하다. '영식'은 남한을, 남편은 북한을 각각 상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익인물들이 군대를 지원하는 이유도 역시 자신 또는 가족이 공산당에게 피해를 입어 그것을 복수·보복하기 위한 것이 많다. 「홍남 철수」의 '박철', 「영원히 사는 것」의 '김이섭' 등이 그 경우다.

'육·이오' 중에는 안해를 공산당에게 죽게하고, 이번에는 또 아이들마저 잃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은 찢어지는 듯 쭈시고 아팠다. 동시에 그는, '육·이오' 사변 돌발 당시나, '구·이팔' 수복 직후에는 너무 흥분에 빠졌다가 이번에는 또 너무 감상(感傷)에 날편 것이라는 새삼스런 타산적 감상이 들며, 자기 자신에 대한 영풍스러운 혐오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도대체, 왜 '육·이오' 때는 가족들을 데리고 남하하지 못했으며, 또 '구·이팔' 이후에는 무슨 놈의 분이 그렇게 치밀어,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혼자서 원수를 다 갚을 듯이, 이렇게 눈과 어름에 잠긴 동북전선으로 쫓아왔으며(...)¹¹¹⁾

“나는 모병에 지망했네. 공산군놈 새끼들 가만 들 수 있나. 전선에 나가 한두 놈 죽이고 나도 죽을라네.”

(...) 김이섭은 가족이고 자기 생명이고 들볼 때가 아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한 후에 가족이 살고 자기가 살면 뭣하느냐 — 하는 국가지상(國家至上) 민족지상(民族至上)의 이념이 그의 머리 속에 짝 배겨 있었다. (...) 일찍이 이복에서 자기를 못살게 한 그 원수, 이남까지 침략하는 그 공산군을 쳐 물리치고야

109) 박영준, 「용초도 근해」, 앞의 책, p. 67.

110) 한승욱, 앞의 논문, p. 27.

111) 김동리, 「홍남 철수」, (『현대문학』 1955.1월호), p. 131.

만다는 결심을 품었던 것이다.

(...) 이번 대전에서 대구,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사이에, 임신중인 아내와 어린 것을 데리고 피난오다가, 도중에 어린 것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병사나 아사라면 덜 억울하련만, 피난민 차에 올라탔다가 수천명이 업치락뒤치락하는 판에 떨어져 피를 흘리고 무참히 죽었다는 것이다.

“그놈 공산군 때문에 피난 다니다가 아이놈을 죽인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려 못견디겠네.”

이렇게 말끝을 맺고 그는 이를 악물고 째득째득 갈았다.¹¹²⁾

‘박철’이 군대에 간 이유는 아내를 공산당에게 잃었기 때문이며, ‘김이섭’의 경우는 피난 길에 아이를 잃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이섭’은 ‘어린 것’의 무참한 죽음으로 인해 공산당에 대해 ‘이를 악물고 째득째득 갈’ 정도로 복수심에 불타 있다. 우익인물들은 자신들의 우익선택에 대해 애국적 행위로 인식하면서 그 정당성을 부여한다. 위의 예에서 ‘김이섭’이 “나라와 민족이 망한 후에 가족이 살고 자기가 살면 뭐하느냐 — 하는 국가지상 민족지상의 이념”을 갖고 있음은 자신의 선택을 곧 애국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3) 우익인물의 우국적 행로와 휴머니스트적 기질

우익인물들은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을 한다. 그들은 공산주의 척결을 곧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선’과 ‘악’의 구도를 명백히 하는 흑백논리의 문학적 반영이다.

작품에서 ‘불사신’으로 비유되고 있는 김송의 「불사신」에서의 주인공 ‘이영철 중위’의 생각을 보자. 그는 전선에서 3년만에 휴가를 얻고 부산으로 잠시 귀향한 군인이다. 그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는 것은 ‘패전 사상’이라 여기고 있다. 그에게서 전시의 문학에서 자주 나타나기 마련인 ‘휴머니즘’은 찾아 보기 힘들다. 오히려 적개심을 강하게 고취하며 전투욕에 넘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공산주의 척결만이 애국하는 길이라 인식되기 때문에, 공산주의와의 화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된다.

112) 김송, 「영원히 사는 것」, 앞의 책, pp. 92-93.

“전쟁을 안 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것은 패전 사상(敗戰思想)입니다. 저편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이편에서 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야 있겠습니까. (...)”

“그러니까 휴전회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판문점에서.”

“판문점 회담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까. 그들의 평화 공세(平和攻勢)라는 허울 좋은 휴전회담을”

“전 모르지만 여하튼 얼른 귀결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암만 그래도 싸와 이기는 길이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입니다.”¹¹³⁾

「용초도 근해」의 적개심 혹은 좌익 혐오는 ‘괴뢰’의 옷을 벗어 던져 버리는 행위로 상징된다. 인민군의 포로였던 군인들은 다시 남한으로 송환되게 되자 북에서 지급한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 내던지는 과잉 우국 행위를 하고 있다. 공산주의 사상은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 입었던 옷은 병균이 붙은 것처럼 더럽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무리를 연상케 한다.

그때였다. 어떤 한 사람이 발작을 이르키듯 입었던 옷을 벗어 내 던지었다.

“더러운 놈의 옷 —”

침을 뱉듯이 말하자 모두가 일시에 옷을 벗어버렸다. 병균이 붙은 옷을 처리하기나 하듯 그들은 벗은 옷을 될 수 있는대로 멀리 내던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벗은 옷을 발로 내려 밟았다.¹¹⁴⁾

박영준은 「지열」에서도 여러 군데서 우익 인물들의 행위에 대해 적개심을 고취하고 우국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괴뢰군’을 무찌르기 위해 동네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혈대’를 조직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명혜’와 어머니 등 동네 사람들은 좌익들의 눈을 피해 그 의혈대를 몰래 돕는다.

명혜는 그 훤히 보이는 길 위에 괴뢰군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자기도 창을 들고 달려가 한 번 찔러 볼 것을 혼자서 생각한다.

의혈대원을 총으로 쏘아 죽인 괴뢰군! 그 괴뢰군을 못찌를 것이 어디 있겠는

113) 김승, 「불사신」, (『전선문학 제5호』 1953), p. 83.

114) 박영준, 「용초도근해」, 앞의 책, p. 61.

가? 중길(重吉)이를 잡아갔고 고모부를 잡아간 괴뢰군! 수 많은 동포를 잡아다 죽였고 석달 이상 온 겨례를 공포 속에 떨게 한 괴뢰군!

명혜는 다만 한 사람이라도 자기 손으로 괴뢰군을 죽이고 싶기까지 했다. 그러면 자기는 온 겨례의 울분을 풀어보는 것이 된다.

온 겨례를 대표하여 자기 손으로 그 울분을 푼다는 것이 얼마나 통쾌한 일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길 저 아래 무엇이 걸어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창을 권 손에 힘을 주었다.¹¹⁵⁾

위의 인용문에는 '괴뢰군'에 대한 '명혜'의 적개심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혈대원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가족들을 잡아감으로써 공포에 떨게 한 괴뢰군을 한 명이라도 자기 손으로 죽임으로써 그에 대한 울분을 풀어보겠다는 생각이다. 그녀는 그같은 행위들이 곧 겨례의 울분을 풀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다. 이쯤되면 '반공'의 차원을 넘어선 '멸공'의 차원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익인물들의 우국행위에 대해 좀더 살펴 보자.

어머니는 국군도 곧 들어오게 되었는데 산 속에 가서 무엇 하느냐고 말리었다. 그러나 명혜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세요? 어머니두 딸이 나라를 위해 일한다구 어깨가 넓어질 거예요. 산 속에는 여자라구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자니까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해요." 하고 자랑삼아 말할 때,

"좋은 일은 해야지.(...)"¹¹⁶⁾

"이제는 아무런 소원도 없다. 오랑캐들의 손에 죽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목숨을 끊는 즐거움을 가지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세를 불러!"(...)

따라서 총을 든 수많은 손이 하늘로 뻗어 대한민국만세를 우렁차게 불렀다.

만세소리가 끝나자 가운데 섰던 군인이 줄 밖으로 나오며 허리에서 권총을 꺼냈다. 동시에 마주 서 있는 군인들이 제각기 제 앞의 총을 겨누기 시작했다. (...)

"왜들 이러십니까? 왜들 죽어야 해요?"

한노파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귀한 목숨들이 아깝니까? 부모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오랑캐들이 있으면 며칠이나 있겠다구. 글썽 죽기는 왜 죽어요."

그 때 권총 든 군인이

115) 박영준, 「지열」, 앞의 책, pp. 80-81.

116) 위의 책, pp. 85-86.

“우리는 낙오한 국군들입니다. 적에게 잡혀 죽기 전에 깨끗한 몸으로 죽으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나 하세요.”

하고 한노파를 떼밀었다.¹¹⁷⁾

아직 공산군이 침입하지 못한 회사, 학교, 병원 같은 곳 앞에는 남녀노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흐트러졌다 물건을 훔쳐내기에 야단법석이다. 집어간댔자 아무 소용이 없을 사무용비품, 학도들에겐 생명보다 더 중한 서적들, 우리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의료기구들을 함부로 땅에 굴리고 짓밟고 부시고 찢고, 아! ‘이준열사’처럼 창자라도 끄집어내어 그들 얼굴에 뿌리고 싶어졌다. 나라야 뺏기건 말건 애국자야 죽건 말건 사육에만 눈이 뒤집혀서 피끓는 조국의 가슴을 더럽히는 꼴들을 어찌 쓰린 눈물없이 바라 볼 수 있을손가. 나미의 설움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점점 더 부풀기만 하였다.¹¹⁸⁾

「영원히 사는 것」에서의 “이준 열사처럼 창자라도 끄집어내어 그들 얼굴에 뿌리고 싶”다는 생각은 강한 애국심의 발로라 하겠다. 그렇지만 도에 지나치다고 할 만한 이와 같은 묘사들은 리얼리티를 격감시키고 있다. “어찌 쓰린 눈물없이 바라 볼 수 있을 손가”라는 신파극의 대사와 같은 표현에서 보듯이 작가의 감정이 지나치게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지열」에서의 적에게 잡히는 길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하겠다는 군인들의 생각도 그에 다르지 않다.

김송의 「묘표」에서는 ‘인식’이 의협심을 발휘하는 행위를 통해 냉전의식이 전개되고 있다. ‘인식’의 행위는 곧 우국적인 것이다. 이 작품은 ‘허운’이 ‘정임’에게 새장가를 들어 생활하는데, ‘정임’의 전남편이 남파 간첩으로 내려와 산속의 사자바위에 숨어 살며 ‘정임’의 도움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허운’의 아들 ‘인식’이 이 사실을 알고 정임을 호미로 죽이려 하다가 되려 전남편의 총에 맞아 죽고, 경찰은 동굴 옆에 무덤을 만들고 국가를 위해 죽은 ‘인식’을 찬양하기 위해 ‘충용소년 허인식지묘’라는 묘표를 세운다는 내용이다.

“이 소년은 단신으로 괴뢰를 잡으려고 하였고. 용감한 소년이요. 국가의식이 강한 애국자요. 길이 찬양할 모범소년이요.”

하고 이순경을 시켜 인식의 시체를 묻으라고 하였다.

117) 위의 책, pp.130-131.

118) 김송, 「영원히 사는 것」, 앞의 책, p. 31.

동굴 한 옆에다 직사각형으로 광정을 파고 시체를 안장한 뒤에 조그만 분묘를 이루어 놓았다. 나무를 찍어다가 다듬어서는 묘표(墓標)를 만들고 주임이 손수 만년필로 충용소년 허인식지묘(忠勇少年許仁植之墓)라고 써서 무덤 앞에 세웠다.

주임과 이순경은 무덤을 향해 경건하고 엄숙한 거수경례를 마치고 그들도 역시 괴뢰를 잡으려 경찰대를 뒤쫓았다.¹¹⁹⁾

이 작품은 철저한 냉전의식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즉, 평화롭게 살던 어느날 수상한 사람(행방불명된 가족)이 나타나고, 가족은 그에게 자수하기를 권유하고, 용감한 소년이 간첩을 잡으려는 의협심을 발휘한다는 것 등은 냉전의식의 문학적 반영의 전형적 틀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다. 물론 '인식'의 적개심이 여기서는 외면상 간첩에게보다 '정임'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그 내면에는 냉전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우익인물들의 우국적 행로에는 휴머니스트적 기질이 발휘된다. 물론, 이는 좌익은 악이요 우익은 선이라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영준의 「暗夜」는 형인 국군 '임 대위'와 인민군 동생 '경재'를 대립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임 대위'의 우국적 행위와 휴머니스트적 기질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임 대위'는 자기 부대에 포로로 잡힌 동생을 발견하고 구해 주려고 하나, 동생이 빨갱이가 되었음을 알고 구하기를 포기하게 된다. 결국에는 도망치는 동생을 자기 손으로 쏘아 죽이며 눈물을 흘린다.

사격 거리에 들어온 포로는 틀림없는 동생이었다.

임 대위는 조준을 한 채 눈을 감았다.

'죽일 자식 - 무엇 때문에 이리루 도망을 온담'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 임대위는 눈을 감은 채 권총을 쏘았다. (...)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주먹같은 눈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¹²⁰⁾

박영준의 「도하기」는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평양에서 후퇴를 하게 되자 정훈장교인 '선우 대위'가 끊어진 대동강 철교를 통해 수많은 피난민들을 도강시키는

119) 김송, 「묘표」, 『사상계』 1957.10월호, p. 364.

120) 박영준, 「암야」(『전선문학』 창간호, 1952), p. 29.

내용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선과 악의 대립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선의 편이 된다는 인식인 것이다. 작가는 피난민의 얼굴을 '거룩한 얼굴'로 표현하는데, 이는 악의 구렁텅이를 버리고 용감히 자유를 찾아 떠난다는 인식이라 하겠다.

선우대위는 발걸음을 돌려 다시 대동강으로 나왔다. 집도 재산도 다 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구해 훌훌단신으로 피란가는 사람들의 그 거룩한 얼굴들이 보고 싶었던 것이다. (...) 겨우 가슴이 개운해졌다.¹²¹⁾

김동리의 「홍남 철수」는 월남하는 피난민을 지칭하는 '유엔군과 자유를 찾아 들끓는 백성들'과 중공군·인민군을 지칭하는 '그 야수같은 놈들'이라는 대립적 표현에서 보듯이 50년대 구세대 소설의 전형적 양상인 우익과 좌익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소설에는 '박철'의 우국적이면서 휴머니스트적인 사고 태도도 잘 드러나고 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니, 돌아 가는데도, 특별한, 우선적인, 대우를 받거나 하던 자기 본위의 생각을 버리고 여기 있는 수십만의 자유국민들이 모다 그와 동행이요, 그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서부터 철의 가슴은 한결 가벼워짐을 깨달았다.¹²²⁾

이상에서와 같은 우익인물들의 우국적 행위와 휴머니스트적 기질의 발휘는 당시 사회에 만연한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이었음은 물론이다. 반공이데올로기는 이처럼 우익인물과 좌익인물을 각각 선과 악으로 도식화하여 창조토록 함으로써 흑백논리의 문학적 반영이라는 역기능을 초래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좌·우익 인물에 대한 도식적 인물창조의 양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1) 박영준, 「도하기」, (『현대문학』 1956.5월호), p. 55.

122) 김동리, 「홍남 철수」, 앞의 책, p.133.

구분	신분	배움 정도	사상선택요인	행로(활동상)	선/악
좌익인물	하층민	무식자층	관념적, 충동적, 보상심리	무모성(회화화 됨), 비참한 종말 또는 전향	악
우익인물	중류층 이상	식자층	애국심, 보복 심리	우국적 행동, 휴머니스트적 기질 발휘	선

<도표 : 좌·우익 인물에 대한 도식적 인물 창조 양상 대비표>

3) 전시 민간인의 반공의식

좌·우익 인물이 각각 악과 선으로 도식화되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확인하였거와, 마찬가지로 전쟁 중의 민간인에 대한 묘사에서도 반공의식을 바탕으로 한 도식성이 드러난다. 인공치하의 민간인과 피난지에서의 민간인으로 나누어 그 양상을 살펴 보자.

(1) 인공치하 민간인의 반공의식

인공치하에서의 민간인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에서는 민간인들의 고초를 다루면서도 인공의 정책에 대해 상술하고 있지 않다. 설령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가혹함, 잔혹성, 몰인정 등을 드러내는 등 부정적이다. 인공의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도 없다. 공산주의는 악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애초부터 작용하기 때문에 인공의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이 있을 리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치하의 민간인들은 막연한 적개심을 갖는다.

인공치하의 서울의 상황을 다룬 염상섭의 「취우」는 같은 구세대 작가로서 유엔군 점령시의 평양의 상황을 다룬 한설야의 「대동강」('55)과 대조적이다. 「대동강」은 평양이 미군에 의해 점령되었던 시기에 이곳에서 장성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평양의 해방을 위하여 생명과 청춘을 걸고 싸웠는가를 얘기하고 있다.¹²³⁾ 「취우」는 총 20장으로 이루어진 장편소설이다. 각 장들을 명명한 것을 보면, 인민군이 쳐들어온 것을 '절벽', 유엔군의 인천상륙을 '충천한 화광', 9.28 서울 수복을 '해방의 자취', 중공군 참전에 의한 평양철수를 '다시 떠나는 유랑의 길'로 각각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 작품에서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취우」에 나타난 민간인들의 인식을 좀더 살펴보자.

순제는 뼈죽이 뺨친 포신을 보다가, 그 아래 우체통 구멍 같은 전망공(展望孔)으로 번쩍하고 두 눈만 보이는 올빼미 눈꼴 같은 눈길과 마주치자, 반사적으로 그 다음 차로 눈을 옮기려니까, 별안간 따따...따따...하고 좌우쪽에서 쿵 끼엿는 소리가 난다. 바로 앞줄에 섰는 사람들의 발밑에서 총알에 맞은 물먹은 흙덩이가 튀는 것이 힐끗 눈결에 띄었다.(...)

“죽일 놈들! 아무리 위협 사격이기루.....”

(...)“망할 자식들이지, 비전투원인 시민에게 총부리를 대다니!”¹²⁴⁾

병원문을 나서자니까 우루루하고 비행기 소리가 요란히 난다. 한대, 두대, 세대..... 비교적 얇이 뜬 정찰기가 커다랗게 차례차례 나타나며 빙빙 돈다.

“앗! 미국 비행기! 떼도망을 간 강도난 집을, 들여다라도 보아 주는 컷 손님 아닌가! 어쨌든 고맙구먼.”

순제는 발을 멈추고 잠깐 치어다보며 생긱 웃는다.¹²⁵⁾

“만일 이대루 공산 천하가 된다면 아마 난 애국에 목매달아 죽어야 할까봐.” 아무래도 피난을 가야 하겠다는 의논을 하다가 순제는 이런 소리를 불쑥 하였다.

“생각을 말아야지, 단 하루건만 우울해 못 견디겠는데!”

“어쨌든 월북한 축들까지 몰려 내려와서 채를 잡기 전에 요정이 나아지 그렇지 않다가는.....”

순제는 점점 심각한 낯빛으로 무슨 생각에 끌려가는 눈치다.

“어째 켜기는 조건이 있는가 보군요. 전향펜 아니슈?”

123) 김윤식은 「취우」와 「대동강」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근대문학사의 연속성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한바 있다. 김윤식, 「우리 근대문학사의 연속성에 대하여 - 「취우」와 「대동강」을 중심으로 - 」, 「한국의 전후문학」(한국현대문학연구회, 1991), pp. 7-33.

124) 염상섭, 「취우」, 앞의 책, pp. 39-40.

125) 위의 책, p. 38.

하고 영식이는 신통치 않은 이야기는 집어치려고 실없이 꺾꺾 웃어 버렸다.
“난, 원래 빨갱이라면 송충이보다 더 소름이 끼치구 생리적으로 싫으니까!”¹²⁶⁾

민간인들의 입장에서 인민군들은 ‘죽일 놈들’이자, ‘망할 자식’이며 ‘강도’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빨갱이라면 송충이보다 더 소름이 끼”친다고 까지 인식한다. 강한 적개심의 표출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런 상황에 있는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양 진영관에 따른 냉전적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좌익의 무리들은 ‘하꼬방’ 같은 것을 얻기 위해 ‘개지랄’을 베풀고 다닌다는 식으로 민간인들에게 인식되는 경우가 염상섭의 「탐내는 하꼬방」에 나온다. 인공의 정책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인식하며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대신, 그들의 만행을 드러내는 데는 매우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 그 하꼬방이 다섯 식구를 먹여 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요새로 부쩍, 그 하꼬방이나마 헐어버리라고 <내무서원>인가 낮도깨비인가 사시로 개지랄을 베풀고 다니는 터이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온 지 며칠이 못되어서부터 세금세금하고 들볶는 그 등살에 잡단 장사치 따위는 지탱을 해 나가는 수가 없는데(...)¹²⁷⁾

인공치하의 서울에서의 삶을 그린 최정희의 「수난의 장」은 피난가지 않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작가의 문학관 등 사상을 엿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인공의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정희의 「정적일순」은 월남해 살던 한 노파가 인공치하의 서울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며느리는 공산당의 새끼들이라 극성스럽다는 말을 했다”¹²⁸⁾ 라는 언급에서 보듯이 좌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짙게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영원히 사는 것’의 ‘형칠’이 인공치하의 생활을 예견한 다음의 말에서는 인공치하를 ‘지옥의 해골바가지’라고 표현한다.

126) 위의 책, p. 65.

127) 염상섭, 「탐내는 하꼬방」, 「염상섭전집 10」(민음사, 1987), p. 259.

128) 최정희, 「수난의 장」, 앞의 책, p. 31.

“나미씨, 이 서울이 어떻게 되리란 것을 생각해 보았으? 내일이면 적색 정치가 시작될 것이요. 폭력, 살육, 암흑의 정치, 그것을 상징하는 인공기(人共旗)가 펄럭이고 그 속에서는 지옥의 해골바가지가 그 보기 싫은 너털웃음을 칠 것이요.”¹²⁹⁾

인공 치하의 세상은 민간인들에게 온통 공포 분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민간인들에게 비친 좌익들의 얼굴은 “모조리 협상궤고 살벌”하기까지 하다. 물론 전쟁 중 자신들의 삶터에 쳐들어 온 상대편 군인 또는 세력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경계심은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더욱 확산·증폭되어 경계의 차원을 넘어서 공포에 떨도록 만들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파출소 자리엔 소학생 글씨처럼 서투른 솜씨로 내무서라는 붉은 글자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물려앉아 떠드는 얼굴들은 모조리 협상궤고 살벌하여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죄도 없이 공연히 가슴이 울렁거렸다.¹³⁰⁾

동 인민위원장인 듯한 자가 서류를 들고 죄상을 문초하는 모양이다. 무어라고 꿇어앉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마디소리를 뱉 — 하고 지르면 죄인 세 명은 허리를 굽혀 땅에 머리를 조아린다. 그러면 군중 속에서 누구든지 한 사람 ‘때려라’ ‘죽여라’, 하는대로 몽둥이가 번뜩이고 돌이 날아간다. 꿇어앉은 사람들 몸뚱이에선 선지피가 흐르고 살점이 묻어나건만 누구 한 사람 씩 나서서 동정할 수는 없다. 그들 세 명이 가혹한 매에 못이겨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공산군이 달려들어 마치 백정이 소나 돼지고기를 다루듯 자동차에 실고 어디론가 사라진다. 아마 사형을 집행할 장소로 가는 모양이었다.

(...) 저자들이 악질이요 반동이라는 사람은 즉 대한민국에서 충성을 다한 애국자들이 아닌가.

형철이와 같이, 조국을 좀먹어 들어가는 공산도배들과 투쟁했다는 무고한 죄. 나미는 애국자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서울 거리가 지옥의 용광로 속 같이 두렵기만 하였다.¹³¹⁾

위의 인용문의 예에서 보듯이 인민재판을 하는 얘기를 ‘무어라고’ 식으로만 추

129) 김송, 「영원히 사는 것」, 앞의 책, p. 23.

130) 위의 책, p. 30.

131) 위의 책, p. 35.

상화시켜 그 내용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인민재판 과정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작가가 의도적으로 인공 정책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의 거리는 '지옥의 용광로 속'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역시 인공치하의 생활을 그린 최인욱의 「어린 피해자」에는 인공이 점령한 서울이 '공산군의 소굴'로 인식된다. 이 작품은 교장선생 아들 '철'이 군고구마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 나가다가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는다는 내용이다. 인정사정 없는 인민군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의 '어린 피해자'란 '철'을 말한다. 인민군의 정책에 대한 언급은 "하긴 공산군이 서울에 와서도 식량배급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배급은 극소수의 사람에게 불과하였다. 소위 열성분자란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¹³²⁾는 대목에서 보듯이 매우 부정적이다. 또한 "무스거 어째? 이 쌍 간나 새끼"¹³³⁾와 같은 폭언을 수시로 일삼는 공산군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 피해자」를 비롯한 최인욱의 소설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해 다루면서도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비극에 대한 깊이있는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¹³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민군 또는 좌익의 폭력성, 잔인성, 몰인정, 가혹성 등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데 반해, 그 정책에 대해선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이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작품에 수용된 양상으로 해석된다.

(2) 피난지 민간인의 반공의식

인공치하에서의 민간인들만이 아니라 피난민들 역시 공산군의 침략 때문에 자신들이 삶터를 버리고 떠나야 하는 고초를 겪는다고 생각한다. 더 근본적인 원인,

132) 최인욱, 「어린 피해자」, (『현대문학』 1955.7월호), p. 17.

133) 위의 책, p. 24.

134) 김영화, 「감상적 색조와 자연미의 발견」, 『현대작가론』(문장, 1983), pp. 135-136.

즉 전쟁이나 분단의 원인에 대한 관심은 제대로 제기되지 않는다. 이는 추상적 현실인식으로 반공의식의 또 다른 반영인 것이다.

김동리의 「밀다윈시대」, 황순원의 「곡예사」, 김이석의 「동면」 등은 문인 등 예술가들이 전쟁 중에 어떤 피난 생활을 했는가를 잘 나타내는 작품들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세 작품 모두 작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성격의 소설로써 작품의 배경이 되는 피난지는 대구와 부산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서는 이데올로기 문제나 분단 현실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김이석의 「동면」에서 '우리' 일행은 연극 활동을 자유로이 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월남하게 된다. 그만큼 월남하기 이전의 북한에서의 활동은 부자유스러웠다는 얘기다. 국군과 유엔군의 평양 점령을 '해방'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공산치하였던 북한사회에 대한 상대적인 거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사실 우리들은 연극을 하기 위하여 극단 전원이 집단적으로 월남하였다.(...) 우리들의 극단은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으로 평양이 해방됨과 아울러 조직되었던 것이다. 공산치하에 자유를 잃고 있던 우리 연극인들은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연극을 하는 일이라고 그 어지러운 통에서도 재빨리 극단을 조직했던 것이다.¹³⁵⁾

주요섭의 「이것이 꿈이라면」은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에 진주하자 해방 직후에 월남한 평양 출신 청년 '최광진'이 고향을 찾아갔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소설이다. '최광진'이 해방 직후에 월남한 것은 사상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이 작품에서는 유엔군의 평양에서의 퇴각이 '몹쓸놈의 악몽'으로 표현되면서 그것이 꿈이기를 바란다.

평양 시내는 수라장이었다. (...) 거리거리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쿵 팡, 쿵 팡 소리는 동서남북에서 다 들려 오는 것 같고 여기저기 폭발 불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다.

광진은 무턱대고 사람 많이 쏠리는 데로 따라갔다.(...)

한참동안 밀려 다니다가 앞이 좀 트이는데 얼핏 보니 거기는 강이었다. 사람

135) 김이석, 「동면」, (『사상계』 1958. 7월호), p. 408.

들이 앞을 다투어 강물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다.(…)

‘꿈!’ 하고 광진이는 생각했다. 꿈이 아니고야 이런 살어름지는 강물을 육지인 양 걸어갈 수 있으랴! 그는 철벽철벽 걸어가면서 ‘이놈의 꿈아 어서 깨어 주려 무나. 아, 몹쓸 놈의 악몽아. 깨자, 깨자’ 하고 수없이 뇌까렸으나 이 괴악한 꿈은 깰 수가 없이 그냥 그의 다리는 물 속을 철벽철벽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다.¹³⁶⁾

또한 작가는 월남하지 못한 사람들을 ‘낙오자’¹³⁷⁾라고 말한다. 불행하게도 자유를 찾아 월남하는 대열에 끼지 못하고 낙오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군과 인민군·소련군을 동일시 하고 있다는 것¹³⁸⁾이나, “그 악독한 빨갱이 빨치산”¹³⁹⁾이라는 인식은 좌익에 대한 피난민 또는 작가의 혐오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것처럼 피난민들에게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나 전쟁의 원인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인데, 그 책임은 역시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게 돌리고 있다. 북한은 적이자 공산괴뢰가 지배하는 악의 소굴인 것이다. 물론 전쟁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터를 두고 떠나는 사람들이 그 삶터에 쳐들어 온 세력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 인식은 대개 막연하고 관념적으로만 흐르고 있어 추상화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전쟁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만 접근하다 보니 분단 현실이라는 본질은 논외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단지 전쟁이라는 현상에 의존하여 추상적으로, 혹은 편견에 의한 현실 인식을 하는 것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과 관계가 있다.

136) 주요섭, 「이것이 꿈이라면」, (『사상계』 1955. 2월호), p. 160.

137) 위의 책, p. 142.

138) 위의 책, p. 146.

139) 위의 책, p. 153.

3. 주제의 획일성과 사상의 편협성

1) 휴머니즘과 교훈주의의 표방

(1) 좌익에 대한 휴머니즘의 기회주의적 구현

이데올로기적 적대관계가 민족적 유대로 극복될 수 있다는 인식이 50년대 소설에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당대 소설의 맹점이라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야 한다는 시도를 보인 작품에서도 그에 따른 구체적, 객관적인 탐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관념적으로만 흘렀다. 이데올로기 내용을 알고 그 초월론을 시도한 것과 잘 몰라서 기피하는 태도로 빠진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데올로기보다 민족이나 혈연이 우선이라는 '피 우선론'을 주장하더라도 이데올로기 문제를 제대로 다루면서 주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큰 것이다. 50년대 소설, 특히 구세대의 소설은 이데올로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를 기피하면서 휴머니즘에 호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휴머니즘이 올바르게 구현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의 해결을 개인적 인정에 호소하는 인정적 휴머니즘은 분단인식을 추상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휴머니즘이 이데올로기나 분단 현실에 대한 구체적 접근 없이 개인적 인정에 호소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50년대 구세대의 소설은 이같은 양상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게다가 대체로 휴머니즘이 편향적, 기회주의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우익이 좌익에 동정하여 선처를 베푸는 시혜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황순원의 「학」에서도 우익인 '성삼'이 좌익인 '덕재'에게 은혜를 베푸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성삼'과 '덕재'를 둘다 같은 신분으로 설정하여 화해를 시도한 것은 한편에서 보면 당시 소설의 도식적인 경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어디까지나 작가의 시각이 '성삼'에 기울어 있음을 지나쳐서는 곤란할 것이다. 우익인물인 '성삼'을 중심으로 한 화해의 시도요 휴머니즘의

추구인 것이다. 그러나 소박한 인정주의를 추구한 작가의 의도 만큼은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가까스로 살아 남은 세 군인의 이야기를 그린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은 부상당한 상관인 '주대위'를 버리고 떠난 '현 중위'는 죽고 '김 일등병'은 결국 살아 남게 된다는 내용이다. '김 일등병'이 살아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주 대위'의 도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장교중심적이며 기회주의적 휴머니즘의 발로로 이해될 수 있다.

염상섭의 「동기」는 결국 형 '학수'가 동생의 양자인 '기주'를 맡아 키우는 데서 이야기가 끝난다. 전쟁이 끝나고 9년이 지나도 동생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던 중 조카가 나타난다. '학수'내외는 좌익이 되어 날뛰며 다닌 동생 때문에 집안이 몰락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장래 무에 될지 성이 가시기는 하지만" 맡아 키우기로 작정한다. 우익인 '학수'를 중심으로 한 화해의 시도이자 휴머니즘의 추구 양상이 여기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장래 무에 될지 성이 가시기는 하지만...”

아내도 뼈지게 반대를 하고 나서지는 않았다. 생각하면 박복한 아이기는 하지만, 자란 것을 보니 승굴승굴 밋지는 않기도 하였다. 그는 고사하고 삼득이 (표지기의 아들로 좌익활동을 함 — 필자 주)가 아홉 해를 길러 주었다는데, 이름만이라도 백부 백모요, 동생의 양자라는 것을 이만치나 큰 것을 함부로 내쫓는 수는 없다고 아내도 생각하는 것이었다.¹⁴⁰⁾

김동리 「자유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50년대 구세대 작품에서의 휴머니즘의 양상을 잘 보여 준다. 종로서로 끌려간 '영옥'을 구명하기 위한 일련의 일들이 그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석방 탄원서에 '영옥'의 밀고로 피해를 입은 '석 박사' 가족 등이 서명날인을 하는 것은 뉘우친 좌익의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서한다는 아량을 보이는 것으로 당시 소설들의 도식성에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다. '인식'과 '미경'의 대화를 보자.

“이 기회에 영옥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복에도 그들이 질 것 같아.

140) 염상섭, 「동기」, 앞의 책, p. 355.

그 애를 희생시킴으로써 아버지의 원수가 갚아지는 거라면 또 모르지만.....
어머님께는 말하지 말고 오빠에게만 양해를 빌어줘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최
대의 프레젠탈이라고.....”

“저도 오빠한테 괜히 고자질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찢려요. 그땐 저도 너무 흥
분한 김에 그랬지만.....”¹⁴¹⁾

좌익적 행동은 최악이지만, 그것을 누우치면 얼마든지 용서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한 것이라 좌익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면 사상의 노예로 전락하여 악인이 되나, 좌익 이데올로기를
버리면 악인에서 선인으로 전환된다는 인식인 것이다. 따라서 선인이 된 인물에
게 선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당대 소설에서 휴머니즘의 작용은 이
같은 도식성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김동리의 「홍남 철수」에서의 휴머니즘 역시 이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 작품은 전쟁이란 잔인한 것이라는 상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 경
우에도 포기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당한 규범만이 강조되고 있다. 그같은 상식과
규범의 밑바탕에 반공이데올로기가 확고한 전제로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에 구세대 작가들의 문학 세계가 갖는 일반적 특성이 뚜렷해지는데, 반공 이데올
로기에 바탕한 소박한 휴머니즘의 기회주의적 작용이라는 폐쇄된 세계가 그것이
다. “작가의 미리 규정된, 폐쇄된 시각이 인간과 관련된 세계의 실재를 파악하는
데 이르는 길을 근본에서 차단하였던 것”¹⁴²⁾이다.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구세대
의 폐쇄된 시각이 휴머니즘을 기회주의적이고 편향적으로 작용하게 만들었던 것
이다.

박영준의 「용초도 근해」 역시 이러한 구세대 문학의 일반적 특성을 잘 보여주
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반공문학
이다. “보기 드문 ‘양심의 괴로움’을 문체삼은 작품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자세히
살피면 맹목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와 소박한 휴머니즘이 만들어 낸 거친 가공물임
이 확연하다. 몸에 걸친 ‘괴뢰의 옷’을 모두 벗어 내던지고 ‘대한민국이 주는
옷’으로 갈아입는 행위 아래에는 남북의 화해 불가능한 절대의 대립을 조금의 머

141) 김동리, 「자유의 역사」, 앞의 책, p. 451.

142) 정호웅, 「50년대 소설론」, 앞의 책, p. 44.

뭇거림도 없이 받아들이는 맹목적인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다".¹⁴³⁾ 복을 악이요 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 확고히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상호 화해의 시도조차 없다.

박영준의 「피의 능선」에서도 휴머니즘과 반공이데올로기가 접합되어 적개심 고취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은 장마철에 벌어진 '피의 능선' 전투에서 수차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그 능선을 점령하게 되나 '원 중위'는 '적'의 기관 포탄에 맞아 부상을 당한다는 내용이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상을 당한 원광철 중위는 전사한 전우에 대한 죄의식 등으로 1년 반이면 치료될 수 있는 다리를 절단하는 길을 자청한다.

더구나 수 많은 전우들이 영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떠났는데 자기만은 불구자가 되지 말자고 일년 반이나 병원에 누워 있을 수가 있는가?

고혼(孤魂)들이 누워 있는 자기를 비웃을 것이다.(...)

원 중위는 혼자서 신음소리 비슷한 비명을 울리고는

"잘라주시오. 오늘루라도 잘라줘요!"

하고 군위관을 향해 땀부림을 치며 부르짖었다.¹⁴⁴⁾

전장에서 수 많은 전우들을 잃고 자신만 살았다는 사실이 죄의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위의 예처럼 그 죄의식을 과대 표현하는 것은 '비장함'과 '엄숙성'의 부각을 통해 적개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휴머니즘이 기회주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50년대 구세대 소설에서의 추상적인 관념의 휴머니즘은 대체로 기회주의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도식성을 띠고 있다. 이 도식성은 현실을 추상화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역시 이러한 양상은 당시 사회에 만연한 맹목적인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43) 위의 논문, p. 45.

144) 박영준, 「피의 능선」, (『사상계』 1955. 2월호), p. 194.

(2) 반공이데올로기의 엄숙성과 교훈성의 추구

휴머니즘의 기회주의적 구현과 함께 50년대 구세대의 소설에서 엄숙성과 교훈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양상은 곧 반공의식의 표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작가 또는 작중인물의 우국콤플렉스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작가들이 다분히 반공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냉전적 사고에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엄숙성과 교훈성의 추구는 특히 당대 사회의 분위기와 직결되는 것이다.

작품마다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드러나는 적개심 고취 양상은 반공문학의 한 전형이다. '공산주의는 악의 근본이요, 북한 공산 피뢰 집단은 악의 무리이므로 무찔러 없애야 한다, 북한 동포를 악의 소굴에서 하루빨리 구출해야 한다'는 당시 사회의 의식이 작품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당대 사회에서 그것은 곧 애국의 길로 통하였다. 같은 50년대의 북한문학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반미의식을 고양시키고 있다.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소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당대 북한문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전쟁기의 북한문학은 인민군의 투쟁을 찬양하고 후방 인민들의 애국주의를 고취한 문학¹⁴⁵⁾이었음에 비춰 볼 때 지극히 대조적임이 드러난다.

김송의 「불사조」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강한 엄숙성과 교훈성을 추구하는 50년대 구세대 소설의 전형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사가 '이 중위'라는 군인에 대해 '불사신'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애국주의 또는 전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작품에서 문사의 발언은 작가 김송의 발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중위가 문사의 말대로 자신이 불사신이라 느끼는 순간 기차가 그를 실은 채 줄기차게 달리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전투의식을 강하게 고취하는 것이다.

문사는 소리를 질러 진정 감탄했다.

14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현대문학편, 1959』(인동, 1988), p. 240.

“이 중위는 불사신(不死身)입니다. …… 정말 즐기차게도 사는 강인한 생명력(生命力)입니다.”

그는 감격해서 눈시울마저 뜨거워졌다.

“선생님 저는 이제 자신이 생겼습니다. 세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넘겼으니, 죽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싸우겠습니다.(…)”

(…) 그는 억분의 눈물이 솟았다. 문사도 역시 같은 감동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기차는 대구역에서 잠깐 머물렀다.(…) 아까 문사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그러다가

“옳지. 나는 불사신이다! 불사신!”

(…) 기차는 그를 실은 채 즐기차게 달렸다.¹⁴⁶⁾

작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확연히 드러나는 최인욱의 「어린 피해자」의 마지막 부분 역시 교훈성 추구 경향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다. 공산군의 잔학성, 몰인정성이 작중인물이 아닌 작가 자신의 목소리로 강하게 제기되면서 작품이 끝을 맺고 있다. “그에게도 죄가 있었는가”라는 작가의 흥분된 목소리가 별다른 여과없이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산군이 철이 앞에다 장총을 겨누었다. 그들은 반동이면 으레 죽여도 그만인 줄로 아는 모양이다. — 어린 피해자. 그에게도 죄가 있었는가?¹⁴⁷⁾

크게 보았을 때 좌를 악으로, 우를 선으로 미리 설정한 상태에서 마치 고대소설에서와 같은 권선징악의 관념이 팽배해 있는 것이 분단 현실이나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룬 50년대 구세대 소설의 한 양상이다. 좌익에 대한 개인적 복수심이 곧 애국심으로 쉽게 연결되는 식의 50년대 소설의 지나친 엄숙성과 교훈성의 추구 경향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결국 이러한 양상은 문학의 경직화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다.

146) 김송, 「불사신」, 앞의 책, p. 87.

147) 최인욱, 「어린 피해자」, 앞의 책, p. 25.

2) 실존주의 수용과 반공이데올로기적 요소

실존주의는 50년대 문학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실존주의의 영향을 살피는 것은 이 시기 문학의 특성을 구명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세대의 소설에 실존주의적 요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반공이데올로기와 어떤 영향 관계를 갖는가. 사실 50년대에서 실존주의적 요소는 구세대보다는 신세대 작가에게 더 확연히 드러난다. 다만 구세대에서도 당대에 마치 유행사조처럼 성행한 실존주의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그 수용 과정에 반공이데올로기와 접합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관점으로 이 연구에서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실존주의 수용의 양상을 개별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까지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수용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의식까지도 겸해서 받아들였다. 따라서 실존주의 문학사상은 자연스럽게 50년대 지식의 중심부를 이루게 되었다. 민족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우선하고 체제가 우선한 곳에서 서구의 전후문학 사상이 한국문학으로 이입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¹⁴⁸⁾

실존주의가 한국으로 이입되면서 그 철학사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과정은 생략되는 양상을 띠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매성과 비합리성을 지닌 실존주의는 루카치의 지적처럼 관념론이나 유물론 모두를 뛰어 넘으려는 제3의 방법이거나, 제국주의 단계의 부르주아적 의식의 표현 혹은 개량주의의 본성을 드러낸 이념으로 파시즘을 옹호하는 기능을 지녔다는 등의 역사적 의미나 비판의식 등이 전제되지 않은 채 50년대 분단한국의 문학에 유입되어 왔다¹⁴⁹⁾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실존주의에는 구세대보다는 신세대 작가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구세대 중에서는 특히 김동리가 실존주의에 많은 관심을

148) 전기철, 앞의 논문, p.17.

149) 임현영, 『한국현대문학사상사』(한길사, 1990), pp.69-70.

보여 「실존무」, 「귀환장정」 등을 발표하기도 한다.

「실존무」에서 작가는 이미 붕괴된 피난지에서의 성 윤리를 '실존무'라고 꼬집는다. 극작가인 '이영구'는 친구 '김진억'과 동거하고 있는 '장계숙' 여인을 연모한다. 그러던 중 이북에서 내려온 '김진억'의 본처 '경희'가 나타나자 '이영구'는 '장계숙'과 함께 춤추며 “됐어, 됐어! 부라뽀야! 부라뽀오! 실존주의가 무엇인지 이제야 아는 거야!”라고 외친다. 이들은 틈만 나면 술을 마시면서 실존주의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간 존재 의미를 숨김없이 드러내려 했다는 데에 이 작품의 의미가 있다.

「귀환 장정」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제2국민병 훈련소에서 석 달 동안을 보내고 휴전이 되어 귀환하는 두 제대군인의 모습을 그린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작가의 실존주의적인 주제 의식을 압축해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귀환장정인 '의권'은 '상복'과 삶의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 '의권'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지로서 어려운 환경과 대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권'의 태도는 정부, 혹은 사회가 평화롭게 살던 그들을 의미 없는 전쟁 연습에 몰아 넣은 것에 대한 반항과 저항의 의미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현실과 대결하며 살아가려는 실존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¹⁵⁰⁾

그러나 김동리가 추구한 실존주의 성향의 작품은 자아 해체의 극복이 미수에 그치고 여기서 자기분열적 중후를 나타내면서 내면 세계의 끝없는 탐사 작업으로 침잠해 들어간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상황 극복의 불가능 앞에서 전략, 퇴폐, 환멸, 고뇌, 절망 등으로 주인공을 몰아가는 특성이 있는데,¹⁵¹⁾ 이는 그가 수용한 실존주의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동리 만이 아니라 당시 다른 작가들에게도 실존주의가 사회현실의 적극적 참여에는 멀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물론 이념의 경직성 등 사회적 제약의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다.

150) 이태동, 「샤머니즘과 실존적 민족 문학」, 『한국대표명작11/김동리』, (지학사, 1985), pp. 259-260.

151) 임현영, 앞의 책, p. 83.

실존주의는 세 가지 신화로써 설명될 수 있다. 그 세 가지는 쿠라 신화, 시지프스 신화,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일컫는다. 이 세 가지 유형 중 우리 나라에서는 비교적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프로메테우스 신화적 요소는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없었다.¹⁵²⁾ 앞에서 살핀 김동리의 작품들도 쿠라 혹은 시지프스 신화적 요소가 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루카치는 실존주의 문학에 대해 모더니즘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해 주는 이데올로기로 보면서 세계를 부정하고 역사로부터 도피하여 병적인 주관주의에 빠져 있어서 병리학의 탐구에 몰두해 있다고 비판한다.¹⁵³⁾ 50년대에서 우리나라의 실존주의 수용은 대체로 역사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루카치의 지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50년대 한국문학에서의 실존주의 수용이 역사로부터 도피하는 경향을 띤 것은 반공문학에 일조하는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르트르보다 까뮈가 더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것도 당시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반공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사르트르의 좌경화에는 거부반응을 보였던 것이다.¹⁵⁴⁾ 당시

152) ㉠ 우수의 여인 쿠라(Cura)의 신화 <하이벡거,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등> — 이 계열의 문학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조하는 가장 비사회적이며 반역사적인 미학 형식을 취함. 이들 미학은 제국주의 최고 단계인 파시즘 체제에서도 미학적 고고성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파시즘 이념의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만용을 보이기도 했음.

㉡ 시지프스 신화 <까뮈 등> -- 현대인의 무한한 반항의지 상징화 기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끝없이 노동의 연속과 반복에 시달려야하는 민중들에게 하나의 마취제적 기능을 할 뿐 역사적 변혁의 기능에는 기여하지 못함. 현대인이 헤어날 수 없는 일상성과 반복속에서 그나마도 생의 의미와 재미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순용주의적 기본자세. 봉건적 교훈성의 이념.

㉢ 프로메테우스 신화 <사르트르, 보봐르 등> -- 실존주의 문학에서 가장 역사의식이 많은 작가들에 의해 반영. 고독이나 우수 혹은 끝없는 부조리와 허망함보다는 현실 개혁 의지를 나타냄 (이상 임현영, 위의 책, pp. 72-78).

153) 전기철, 앞의 논문, p. 84.

154) 전기철, 위의 논문, p. 20. : 까뮈와 사르트르 간에는 반공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까뮈가 사르트르를 가리켜 러시아 강제수용소를 비난하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부르주아'라 공격하자, 사르트르는 러시아 강제 수용소 하나만을 가지고 서방측의 모든 부정을 은폐하려는 반공이념의 확산으로 이끌려는 비열성을 꼬집으면서 그 비인간화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논리로 몰아갔다. (임현영, 앞의 책, p. 77)

비평가인 김봉구와 정명환 등은 사르트르와 까뮈를 비교하면서 사르트르보다는 까뮈의 문학과 사상을 높이 평가¹⁵⁵⁾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존주의 문학 이입의 초기 단계는 제국주의 이념으로 칠해진 쿠라적 논리 선상에 있었다. 50년대의 한국사상사적 풍토를 대변해 준 『사상계』는 시종 니체, 까뮈 등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불안 의식과 위기 의식 속에서 인간이 지닌 숙명적 고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철학과 문학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옹호해 준 결과를 빚는다.¹⁵⁶⁾ 사회현실의 구체적 형상화에서 문학이 멀어지게 된 것이다. 즉, 이 시기 쿠라 혹은 시지프스적 실존주의는 순수문학을 보다 관념론적 미학으로 나아가도록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사람에게 고통과 공포를 안겨 준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실존 문제는 제일의 가치로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면은 한국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한국전쟁은 그 과정에서 끊이지 않는 상호 보복이 이루어진 관계로 엄밀히 보자면 실존 문제보다 이념 문제가 우선적인 가치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실존은 양자택일의 결단이었으며, 남한에서의 실존은 반공이데올로기에 승복하는 것이었다.¹⁵⁷⁾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실존주의 수용은 한편으로는 작가들에게 새로운 지적 출구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 문학을 현대적으로 변모시키는 데 일조하였으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사회에서 맹목적으로 요구되던 반공이데올로기와 교묘히 결합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 실존주의는 특히 50년대 문학 전반에서 매우 특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155) 전기철, 위의 논문, pp. 24-31.

156) 임현영, 앞의 책, p. 78.

157) 유재일, 앞의 논문, p. 144.

IV. 反共이데올로기가 文學史에 끼친 影響

1. 신세대 작가에 끼친 영향

문학에서 상호 영향 관계를 규명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특정 작가와 작가 사이에는 물론이거니와 작가군 또는 세대 간의 영향 관계는 더욱 그렇다. 특히 같은 50년대에서 신세대와 구세대라 불리는 작가들 사이에 어떤 뚜렷한 영향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가 의문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영향 관계가 있으리라는 가정 아래 논지를 전개하는 것은 반공이데올로기가 오늘날의 시점에서조차 정도가 매우 축소되기는 했지만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가장 큰 이유는 작가들 간의 영향 관계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인을 전제로 하면서 문학 자체에서의 영향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른바 '신세대 작가'들은 실존주의 성향의 문학 등을 시도하면서 구세대를 극복하려 했으나 대개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다. 이는 신세대 작가들이 문단의 주도권을 잡은 '문협' 세력들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해 등단했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¹⁵⁸⁾ 신세대들은 50년대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이기 때문에, 당시 기성 문단에서 요구하는 성격의 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성 문단, 즉 구세대들은 적어도 이데올로기 면에

158) "전후세대들은 새로운 지식, 즉 서구의 현대 자본주의의 지식을 수용하여 문단의 중심부에 도전한다.(...) 왜냐하면 제일공화국 정권이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그 자본주의 사회의 자기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서 단순한 이데올로기 투쟁으로서의 문학사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후세대는 재빨리 서구의 첨단 사상을 수용해 와 문학적 지식의 변이를 노린다. 그러나 그것은 전후세대의 욕망일 뿐이다. 문협의 지도층이나 기성세대에 의해서 그들이 문단에 데뷔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조연현이나 백철, 박종원 등에 의해 전후세대층이 등장한다는 것은 문단의 활성화 전략으로 이루어진 것"(전기철, 「한국전후 문예비평의 전개양상에 대한 고찰」, 서울대박사논문, 1992, pp. 6-7).

서는 반공 성향의 작가였으므로 신세대들도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다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최인훈 등 일부 작가들에 의해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시도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것은 구세대의 문학 세계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냉전의식의 수용이 구세대 작가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것도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영향 관계를 놓고 볼 때 구세대 작가와 대동소이한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선우휘·장용학·서기원·강용준 등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수용한 경우도 많았다. 선우휘·정한숙·곽학송 등 신세대 작가의 경우도 월남 체험이 있는 작가가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다는 것은 구세대와 동일한 양상이다.

특히 이들 작가들은 구세대와는 달리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전쟁 중이거나 전쟁 직후다. 이는 신세대 작가들이 반공과 밀접히 관련될 여지를 많이 갖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그들의 청년기에서 전쟁체험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그것은 경직된 시대 분위기와 맞물려서 반공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면 신세대 작가들의 반공이데올로기 수용 양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로 하자.

선우휘는 신세대 작가 중에서 반공이데올로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56)는 우익 테러리스트들의 행태를 그린 것으로써 그들의 테러는 거의 맹목적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주먹의 대상으로서의 공산당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걸은 (...) 원망해 본 일이 없었다. (...) 오직 공산당 놈들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 자신의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좋지 못한 일의 근원은 ‘빨갱이’ 공산당 놈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¹⁵⁹⁾

“..... 빨리 고향에 가구 싶수다. 빨갱이덜 테부시야 되디 않소. 티두룩만 해주시구래.”¹⁶⁰⁾

159) 선우휘, 「테러리스트」(『사상계』 1956. 12월호), p. 337.

160) 위의 책, p. 343.

동지들 기다린다 어서가자 이북에 / 등잔 밑에 우는 형제가 있다 / 모두 도
탄에서 해매고 있다.¹⁶¹⁾

모든 좋지 못한 일의 근원은 ‘빨갱이’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염상섭의
「동기」에서의 형 ‘학수’의 인식, 즉 자기 집안이 몰락한 이유를 공산당 때문이라
고 보는 것과 상통한다. 고향에 가고 싶은 이유도 빨갱이들을 쳐부수기 위해서다.
공산당의 만행으로 인해 도탄에 빠진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 이북에 가고 싶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또한 좌익인물을 무지하다고 그린다. 그 양상은 구세대와
마찬가지로 회화화 방식으로 나타난다. 회화화는 신세대가 오히려 구세대보다 심
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인용에서 보듯이 적위대장이란 사람이 반대파인
이승만 박사에게 꽃을 바치겠다고 그리고 있는 점은 좌익에 대한 조소가 짙게 깔
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치가 적위대장 할 때 무슨 대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실패했거덩. 머이라구
했나 하문 여기 붉은꽃, 푸른꽃, 흰꽃, 꽃이 많이 있우다. 이 꽃으루 꽃다발을
만들어서, 즉 공산당, 청우당, 민주당이라구 하는 여러가지 꽃으루 만등거 올수
다. 이 꽃다발을 우리덜이 바칠 사람은 누군가 하문 그것은 이승만 박사올시다.
했거덩, 하하하…….” / “말이야 옳게 했다.”¹⁶²⁾

선우휘의 「똥개」(‘57) 역시 반공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똥개
= 용칠’이다. ‘용칠’이가 빨갱이의 ‘똥개’ 노릇을 하였다는 의미가 되고 있다.
즉, 좌익인물인 용칠이는 공산당에게 이용만 당한다는 면에서 주인에게 이용만
당하고 개장국집에 팔려가는 똥개에다 비유되고 있다. 좌익과 개를 상호 연관시
키며 그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 것은 앞서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용칠’은 소작인의 아들이며, 해방후 공산당이 생기자 면농민위원장이 되어 좌
익활동을 한다. 신분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좌익 선택이다. 좌익 선택 이유가

161) 복진을 노래하고 있음. 위의 책, p. 342.

162) 위의 책, p. 338.

「카인의 후에」의 「도섭영감」과 같다. 「달호」는 「용칠」과 「계집」을 미워하는데, 그것은 똥개에 대한 구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달호의 눈에는 똥개는 개가 아니라 갖가지 미움이 모아진 검은 덩어리로 보였다. / 그것은 달아난 계집과 용칠이었다. / (...) / “계집년 용칠이놈, 계집, 용칠아, 이놈우 용칠이새끼”¹⁶³⁾

이 작품에도 우익인물의 휴머니스트적 기질이 발휘된다. 그것은 작품 말미에 똥개에 대한 연민이 「용칠」에 대한 연민으로 그려지고 있음에서 나타난다. 좌익인물에 대한 우익인물의 시혜적 연민인 것이다. 휴머니즘의 기회주의적 구현이다.

선우휘의 「보복」(’58)에는 우익인물의 사상 선택 요인이 잘 드러난다. 즉, 좌익에게 아버지와 형을 잃은 ‘맹’이 적개심에 불타 마구 적을 죽이게 된다는 식으로 감정적인 이유로 사상 선택을 하게 된다. 보복 심리에 의한 우익 선택이다. 김동리의 「홍남 철수」의 「박철」이나 김송의 「영원히 사는 것」의 「김이섭」의 사상 선택 요인과 같다. ‘맹’은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인다. 왜 서로 죽이는지, 누구의 탓에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해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다.

“왜 사람은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합니까.” / “글쎄 죽이니까 죽이고 그러니까 또 죽이는 거지.” / 하고 난 내 자신도 무슨 말인지 분명치 않은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다. / “그건 누구의 탓입니까.” / “글쎄.”¹⁶⁴⁾

「인간신뢰」(’59)에서 송병수는 한국전쟁 참전 중공군인 ‘혜유’의 참전기다. 여기서도 역시 구세대 작가들이 보였던 추상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제3국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음은 전쟁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 작품에서는 시도한 만큼의 구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혜유’는 자기들과 상관없는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한다. 이념이나 목적 없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혜유’의 신분은 하층민이

163) 선우휘, 「똥개」(『사상계』 1957. 8월호), p. 331.

164) 선우휘, 「보복」(『사상계』 1958. 7월호), p. 380.

다. 그는 하층민으로서, 스스로의 신분적 구속에 대한 자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반상의식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소박하고 순진무구한 생각을 갖고 있어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하층민이면서 무식자층이 바라보는 현실인식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국민당이 밀려가고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였다. 인민해방, 그것이 어떤 말을 가리켜 하는 말인지는 몰랐다. 어제까지 마을을 호령하던 촌장이나 지주들을 몰아내고 관청나리들을 잡아 족치고 할 때 세상이란 그렇게 뒤바뀌는 수도 있나보다 했다. 그러나 어쩌다 미처 피난을 못한 주인집 도령님을 애매하게 잡아 족치는 데는 참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 무엄하게 같이 싸우기도 했다. 장난감을 빼앗기도 했다. 채유가 제 이름 석자나마 알 수 있는 건 도령님 서당방의 어깨너머 글 덕분이기도 했다. 채유는 모진 매로 반송장이 된 도령님을 남몰래 빼내어 공산당의 말로 아직 해방이 안 된 몇십리 밖의 고을까지 밤을 세워 업고 갔었다.¹⁶⁵⁾

곽학송은 월남작가로서 좌익에 기피 증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작품을 통해 읽을 수 있다. 「녹염」(’55)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인민군 포로로 수용소에 갖히게 된 ‘덕보’가 반공포로가 되어 친공포로 무리들과 맞서 싸운다는 내용이다. 포로수용소의 음식이 “인민군에서 주는 것보다 맛이 좋다. 양도 엄청나게 많다”¹⁶⁶⁾며 인민군 생활을 상대적으로 비참하게 묘사하고 있다. 한편, 전쟁이나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어 보인다.



뜰 안의 화단에는 채송화가 널려 있었다. 덕보는 정말 열흘동안만 혼자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다. 할 일이 없었다. 처음 며칠은 공습경보 ‘싸이렌’이 울리면 움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일과였으나, 그럴 필요도 없었다. 새로 동네반장이 되었다는 구멍가게의 주인과 낫설은 몇 사람이 두어번 다녀갔지만 시골서 주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같은 말을 물었을 뿐, 별로 꾸짖지도 않았다. 남의 집에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동네 사람들의 말이 생각났다. 그렇다고 덕보는 조금도 좋지가 않았다. 거리마다 상점은 모두 문을 닫았으나 별나게 소란하다. 인민군 환영 — 의용군 모집 — 공습 — 복구공사 — 눈코 뜰 사이 없이 설레었다. 그러나 덕보에게는 한결같이 무의미 했다. 어서 주인 내외가 시골서 돌아와 다시 영업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¹⁶⁷⁾

165) 송병수, 「인간신뢰」(『사상계』 1959. 12월호), p. 366.

166) 곽학송, 「녹염」(『현대문학』 1955. 2월호), p. 107.

167) 위의 책, p. 171.

인공치하에서 내무부 직원으로 일하는 '순구' 역시 무지한 인물이다. 반면 우경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덕보'는 주인집 재산을 넘보는 '순구'의 생각에 대해 "천벌을 내릴 수작"으로 여긴다. 그의 국군·인민군·유엔군에 대한 인식에서 냉전적인 면이 쉽게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는 좌익인물을 총도 제대로 못 다루고 오발하는 무지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며, 공산주의자를 '광신자'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은 구세대가 보인 반공이데올로기 수용 양상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정한숙의 작품에서도 좌익인물을 무지한 인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반공이데올로기 수용의 한 양상이다. 「고추잠자리」(‘59)의 주인공 '바우'는 두메산골에 어머니, 누이동생과 함께 조국이 분단된지도 모르는 채 살다가 팔자를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빨치산에 투신한지 3년이 된다. 좌익인물을 무지한 인물로, 또는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보자.

정말 바우는 세상에 나와 처음 입어본 양복이다. 아니 군복이었다. / 투박한 손끝에까지 가시지 않은 풀기가 산뜻하게 느껴질 정도다. / 이제부터 바우도 빨치산이 아니라 지금 단 위에서 훈시를 하고 있는 군관(軍官)동무의 말대로 인민군전사(人民軍戰士)였다. / (...) / 땀뻑한 옷깃에 긴목이 쓸릴 때마다 어쩐지 바우 자신은 더 우쭐해지곤 했다. / 지금 바우의 가슴이 벅차지는 것은 단위에서 말하는 군관동무의 말에 감격해서라기보다 당장 이대로 어머니 앞에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 더 간절해서다.¹⁶⁸⁾

바우는 이렇게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나서야 우리 나라가 허리를 졸라매듯 두동강이로 갈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⁶⁹⁾

'바우'가 좌익을 선택하는 이유는 출세와 신분의 극복에 있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인민영웅'이 되고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욕구가 그를 빨치산에 지원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빨치산 생활에서 '인민군전사'가 되기까지 열심히 투쟁한다. 관념적, 추상적 이데올로기 선택인 것이다.

168) 정한숙, 「고추잠자리」(『사상계』 1959. 6월호), p. 368.

169) 위의 책, p. 378.

자기가 불리워질 칭호는 인민군전사나 군관이 아니라 인민영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¹⁷⁰⁾ / 평생 팔자를 고칠 것 같으면 지금의 기회밖에 없었다.¹⁷¹⁾

이 작품의 말미에서 좌익은 은혜를 모르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작가는 좌익을 강아지로 표현한다. '바우'의 어머니는 "기른 강아지가 발뒤축을 무누나 ... 길른 강아지가 ..." 하고 탄식을 한다. 좌익을 개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바라보는 경향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후 젊은이들의 의식 세계를 그려 주목을 받은 서기원에게서도 우리는 반공이 테올로기가 깊숙히 자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기원의 「달빛과 기아」('59)는 인민군이 점령한지 3개월 가까이 되는 서울이 배경이다. 하숙집에서 나온 '나'(김두영)는 여맹원이 된 여자친구 '석희'를 찾아가는데, 며칠간의 사랑의 줄다리기를 끝에 국군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릴 즈음 '나'는 석희에게 "석희는 내 아내야" 라고 말하자 석희는 내게로 쓰러진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사랑의 줄다리기와 인민군 점령 상태가 동시에 해소되고 있다. 여인을 찾아가는 서기원 소설의 특성이 이 작품에도 드러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석희가 여맹에 가입한 동기가 불분명하다. 이념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나'의 행동에 대한 반감, 즉 '나'가 사랑의 확신을 주지 않음에 대한 애정의 도피처인 듯하다. 애정 관계에 의한 좌익 선택은 구세대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작가 서기원 자신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나'는 여자 빨갱이를 싫어한다. 여성답지 못하다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인 것 같다. 공산당을 의도적으로 비하시키고 있는 부분도 보인다.

내겐 여자 '빨갱이'처럼 싫은 것이 없었다.(...) 여자 병사들이 스카트에 먼지 투성이의 보이안 반장화들을 신고 (...) 따발총을 맨 다리가 한결같이 가늘고 짧았다. 나는 그 다리에 생리적인 혐오를 어찌할 수 없었다. 그뒤 길가에서 여자 병사를 볼 때마다 나는 정갱이에 눈이 쏠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번번히

170) 위의 책, p. 371.

171) 위의 책, p. 379.

가슴속이 메스꼬와 지군 했다.¹⁷²⁾

“배급쌀 타먹으려고 여맹에 들어 갔나?” / (...) / “도대체 어쩔 셈이야. 밤
낮으로 들리는 총소리 알지. 무고한 시민들을 마구 총살하는 소린줄 알지?” 나
는 마음 속으로 과격한 언사를 토했다고 뉘우쳤다. (...) / “젊은이들을 잡아다
가 소위 의용군이라구 개죽음시키는 놈들과 어찌자구 붙었느냐 말야.”¹⁷³⁾

서기원의 「오늘과 내일」('59)은 미군 전투정보기관인 '쥬오'부대의 '박병렬'이
동료 '김한균'과 함께 정보 수집을 위해 D읍에 잠복하는 과정에서 자식이 버리
고 간 어느 노인을 만나 구출해 내는 과정에서의 일들이 그려지고 있다. 이 작품
에서 '병렬'은 아버지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인민재판으로 살해되자 복수 의지를
불태우며, 좌익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된다. 당대 휴머니즘의 기회주의적 성격과
우익인물의 보복심리에 의한 사상 선택 양상이 잘 드러나는 소설이다.

김중희는 소련군에 잡혀 시베리아로 실려가는 반공애국자의 르포르타주적인 작
품인 「流刑」('58)을 쓴 바 있는데, 이 작품에는 작가 자신이 공산주의의 만행에
대해 흥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의 「運河」('58)는 노력동원 나간 노인들이 인
민군들의 방위진을 위한 참호를 파다가 미군 폭격을 맞고 모두 죽기까지의 이야
기다. 작중인물이 아닌 작가의 서술에서 인민군에 대해 “놈들의 방위진을 위한
참호를 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놈들이란 물론 인민군이다”¹⁷⁴⁾와 같이 '놈'이라
는 표현을 쓰고 있듯이 작가의 반공의식이 두드러진다. 또한 공산당의 만행을 부
각시키는 데에 적개심을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작가가 드러나게
흥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형식만이 다른 수인(囚人)들이다. '시베리아'의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는 강제노동장의 그런 무리다. / 그러나 놈들의 선전기관은 이것을 가리켜
'자발적이며 용감한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허위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 강제
가 자발로 변하고 기피가 애국적 충성으로 변조된 이 가공할 실태를 아는 사람
은 놈들의 총검 밑에 흑사당하고 있는 못 사람들 뿐이다. (...) 불한당같은 놈
들 (...) / (...) 비전투원에 대한 놈들의 학살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행되어 왔

172) 서기원, 「달빛과 기아」(『사상계』 1959.1월호), p. 417.

173) 위의 책, pp. 417-418.

174) 김중희, 「운하」(『사상계』 1958.7월호), p. 358.

다. 처리방법은 반동분자라는 한마디로 능히 해결되었다. / 양민을 죽이는 것이 반동분자의 숙청이라는 것은 놈들의 상투적인 만행이다. 사격훈련이라고 한 놈도 있다.¹⁷⁵⁾

‘불한당 같은 놈들’, ‘놈들의 학살’, ‘상투적인 만행’이라는 등의 표현은 좌익에 대한 적개심이 어느 정도 강한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의 예에서는 자신들이 당하게 모든 수난이 공산당 때문이라는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점 역시 인공치하의 민간인의 생활을 다룬 구세대의 작품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여기 끌려온 공산당 점령하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 뿐입니다. ...” (...) / 사실 그렇다. 이들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 죄가 있다면 공산당에 점령당한 지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뿐이다.¹⁷⁶⁾

장용학은 「요한시집」('55), 「원형의 전설」('62) 등의 작품에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있다. 당시의 소설로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곳곳에 반공적 색채가 눈에 뜨인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적 대립을 추상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앞 장에서 살펴 본 구세대 소설의 도식화, 추상화 양상이 신세대의 소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신세대의 작품에서 반공문화적 성격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이겠지만, 당시 문단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던 구세대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60년대에 접어들면서 4.19의 영향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유희되면서 최인훈의 「광장」,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등이 전대와 비교하여 분단 인식과 이데올로기 면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나, 거기에는 한계도 적지 않았다.

175) 위의 책, pp. 361-366.

176) 위의 책, pp. 362-363.

2. 냉전의식의 강화

50년대 소설에서 구세대 작가들이 보인 반공이데올로기의 시각에 의한 분단 인식은 이념적 흑백논리를 강화함으로써 냉전적 문학을 장기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그들 세대의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신세대 작가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한국문학에서 이념의 경직화에 따라 흑백논리가 강화되면서 냉전적 문학이 문학적 관습으로 정착되면서 장기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학적 관습은 반복성, 집단성, 자연스러움이란 일반적 속성을 띠면서 여타 문학생산과 수용의 가능성들을 상당부분 제약하였다. 물론 그것은 앞에서도 살폈듯이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인해 이념의 문제가 경직화되고 소재 또는 제재에 한계가 많았던 당대 사회의 현실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였으며, 작가들의 전기적 사실과 성향 등에서도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냉전적 문학은 냉전상황을 소재로 하고 의식, 무의식적으로 냉전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작품이며, 적개심이나 적대감을 부추겨 궁극적으로 적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반공문학의 속성을 지닌다. 냉전적 문학은 긍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도주의자의 얼굴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만드는 차원에 머무는 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냉전적 문학이란 이념적 흑백논리인 냉전의식에 근거하여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 기타 제반 냉전적 상황을 다루어 동족 상호간의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작품이거나 과거의 고생담이나 무용담을 과장되게 서술하면서 안정감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작품¹⁷⁷⁾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냉전적 문학이 한동안 한국 문단을 풍미하게 된 이유는 50년대의 현상에서 기인한 바 크다.

50년대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전쟁문학이 성행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 반공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전쟁문학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고양하였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

177) 김승환, 「분단문학과 분단시대」,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9), pp.23-24 참조.

다. 반면, 시점의 객관성을 잃음으로써 한국전쟁의 객관적 형상화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戰場의 직접성을 넘어 분단이나 전쟁의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도 행하지 못하였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크게 도출된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전쟁소설은 “반공소설의 틀 속으로 폐쇄, 유형화되고 말아 냉전의식의 확대 심화라는 체재편승적 역기능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¹⁷⁸⁾ 50년대 구세대의 소설들은 한국문학사에서 이러한 냉전적 문학의 장기화라는 부정적 기능을 초래하는 데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50년대 구세대의 소설에서 현실에 대한 추상적 인식,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념적 인식이 두드러진 점은 그들이 추구하려던 휴머니즘 또한 약화시키는 결과를 자초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직된 인식이나 소재 또는 체재의 제한이 문학작품에서의 리얼리티의 파괴를 가져옴으로써 문학에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문학사적 교훈으로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분단과 전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홍성원의 「남과 북」, 이병주의 「지리산」, 김원일의 「노을」 등 일련의 소설들은 우리 문학에서의 냉전의식의 전개와 극복 양상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80년대 말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와서는 냉전적 요소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문학전반에서 냉전적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물론 아니다.



178) 정호용, 「분단극복의 새로운 넘어섬을 위하여」, 위의 책, p. 87.

V. 結 論

이 연구는 50년대 한국소설의 이데올로기 수용, 특히 염상섭·김동리·황순원·박영준 등 구세대 작품에서의 반공이데올로기 수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50년대 문학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과 문단의 특성에 대해 밝힌 연후에, 당대 소설에서의 반공이데올로기 수용 양상을 추상성·도식성에 관련시키면서 고찰하는 한편, 주제와 사상 측면에서의 반공이데올로기 수용에 대해서도 점점해 보았다. 아울러 이 시기 구세대의 이데올로기 수용이 신세대 작가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냉전의식의 강화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문학사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몇 가지의 결론을 유도할 수 있었다.

첫째, 해방을 거치면서 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해 확대·심화된 반공이데올로기는 분단 상황이 고착됨에 따라 냉전 의식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러한 정치·사회적 현상이 문학 작품에 투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구세대 작가들의 경우 해방과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에 이르기까지 반공이데올로기를 통치수단으로 이용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수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들의 작품은 작가 자신의 생애에 따른 개인적 성향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 전쟁체험의 영향 등과 어우러져 쓰여졌다.

둘째, 50년대 구세대의 소설에서 전쟁관이나 분단상황, 토지개혁, 사회변혁 등에 대해 다룬 작품들은 그에 대한 역사적 전망을 구체화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실 인식에서 추상성을 띠게 되었다.

셋째, 50년대 구세대의 소설에서 좌우익 인물들의 양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대체로 도식적인 인물 창조를 하고 있다. 즉, 선인과 악인을 미리부터 구별하여 좌익은 악이요 우익은 선으로 도식화 한다. 좌익인물은 대개 하층민 출신이 무식자층이면서 감상적, 충동적으로 사상을 선택하여 경거망동하며 활개치고 다니다가 비참한 종말을 고하거나 참회한다. 반면 우익인물은 중류층 이상의 지식인이면서 애국심과 보복심리에 의해 사상을 선택하여 휴머니스트적 기질을 발휘하며 우국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도식화한다.

넷째, 50년대 구세대의 소설은 그 주제를 전반적으로 휴머니즘, 엄숙성, 교훈성의 추구 등으로 이끌고 있다. 이데올로기 문제와 결부될 때의 휴머니즘은 대체로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해 기회주의적, 편향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엄숙성과 교훈성의 추구 역시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우국콤플렉스를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

다섯째, 50년대 소설의 특징의 하나로 실존주의를 들 수 있는데, 실존주의는 한국현대문학을 진일보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한편, 반공문학의 형성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존주의는 구세대보다는 신세대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여섯째, 엄밀히 말하면 50년대 소설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본격적 접근은 없다. 대부분이 이데올로기를 추상적, 관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요인 등 문학 외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문학 자체의 문제로서도 장편소설 양식이 보편화되지 못했던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일곱째, 문학사적 영향 관계로 보아 50년대 구세대 소설 일각에서의 반공이데올로기 수용 경향은 신세대 작가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데, 신세대 작가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수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 아울러 50년대 구세대의 소설 중 이데올로기 문제가 제기되는 소설에서 반공이데올로기를 수용한 태도는 한국문학에서 문학적 관습의 성격으로 정착되면서 냉전적 성격의 문학을 장기화시키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50년대 구세대의 반공이데올로기 수용에 따른 냉전적 문학은 이후 한국소설의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50년대 구세대의 소설에서 반공이데올로기 수용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경직된 입장에서 관념적, 추상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것이 문학에서 작품성을 저하시키는 데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문학사적인 교훈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데올로기 수용의 이같은 양상이 구세대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세대의 문학이 이데올로기 수용의 부정적 면모로 인해 전반적으로 훼손되는 것도 아님은 물론이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구세대 문학의 한 양상이었음이 분명하므로, 나름대로 그들의 문학 영역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0년대의 남북한 문학은 특히 그 이전까지 하나로 있던 우리 문학이 해방과 분단을 거치면서 어떻게 분화·이화하고 있느냐 하는 양상을 파악한다는 관점에서도 많은 연구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북한의 50년대 문학은 남한보다 더 전쟁과 분단의 문제를 다룬 문학이 활발히 전개되어 전쟁의식, 투쟁의식, 애국주의, 반미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남북한 모두 이데올로기 수용이라든가, 분단 인식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스스로가 처한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상당히 경직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남북의 문학을 동시에 점검해 본다면 그 경직성의 양상이 각자가 처한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확연히 드러날 것이며, 거기에서 상호 보완점도 도출되리라 믿는다. 따라서 50년대 문학은 남북한 문학 상호간의 비교 연구가 이뤄질 때 민족문학사 또는 통일문학사 정립에 바른 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남한문학과 북한문학을 가릴 것 없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비판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자 료>

- 권영민. 『한국근대문인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0.
김동리. 「윤희설」. 『서울신문』 1946. 6. 6 - 26.
김동리. 『자유의 역사』. 중앙일보사, 1987.
『사상계』 영인본. 도서출판 사상, 1984.
염상섭. 『염상섭문학전집』. 민음사, 1987.
『전선문학』 영인본. 도서출판 깊은 샘, 1982.
한국문인협회. 『한국전쟁문학전집』. 미문출판사, 1969.
----- 『광복30년문학전집』. 정음사, 1975.
『한국문학전집』. 민중서관, 1959.
『현대문학』 영인본. 현대문학사, 1981.
황순원. 『황순원문학전집』. 문학과 지성사, 1981-82.

<저 서>

-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권영민. 『한국민족문학론 연구』. 민음사, 1988.
김동리. 『생각이 흐르는 강물』. 갑인출판사, 1985.
김상선. 『신세대작가론』. 일신사, 1982.
김승환·신승범 편.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9.
김영화. 『현대작가론』. 문장, 1983.
----- 『분단상황과 문학』. 국학자료원, 1992.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87.
-----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김현. 『한국현대문학의 이론 / 사회와 윤리』. 문학과 지성사, 1991.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나남, 1992.
박현채 엮음.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소나무, 1992.

브루스 커밍스 외. 『한국전쟁과 한미관계』(박의경 역). 청사, 1987.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 현대문학편, 1959』. 인동, 1988.
 이종오 외.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1991.
 임현영.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길사, 1987.
 ----. 『문학과 이데올로기』. 실천문학사, 1988.
 ----. 『한국현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90.
 조연현.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조연현문학전집1). 어문각, 1977.
 천이두. 『한국현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92.
 하선영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나남, 1990.
 한국문학연구회. 『1950년대 남북한 문학』. 평민사, 1991.
 한국현대문학연구회.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1991.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게오르그 루카치. 『독일문학사』(반성완·임홍배 역). 심설당, 1987.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역. 『철학소사전』. 동녘, 1991.

<논문 · 평론 · 기타>

강인철. 「천주교는 반공이데올로기 강화에 어떤 역할을 하였나」, 『사회평론』, 1992.9-10월호.
 강정구. 「6.25전후 월남민들의 월남 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사회평론』. 92.8월호.
 김영화. 「1950년대 전반기의 문학」, 『논문집』제34집. 제주대학교, 1992.
 신형기. 「순수의 정체 --해방기의 김동리」, 『문학과 논리』제2호. 태학사, 1992.
 유재일. 「한국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착」, 『역사비평』16호. 1992 봄호.
 유학영. 「1950년대 한국소설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87.
 이기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전쟁체험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1989.
 이태동. 「한국순수문학에의 위대한 집념」, 『한국대표명작11』. 지학사, 1985.
 전기철. 「한국전후문예비평의 전개양상에 대한 고찰」. 서울대 박사논문, 1992.
 정영태. 「일제말 미군정기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비평』16호. 1992봄호.
 조남현. 「6.25의 소설화 방법」, 『동서문학』 1988.6월호.
 하정일. 「1950년대 단편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6.
 한상훈. 「한국전후소설의 양상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1982.
 한승욱.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승실어문』 제7집. 승실대 승실어문연구회, 1990.
 황송문. 「실향작가론」, 『북한』 1985. 3월호. 북한연구소.

The aspects of accepting ideology on the Korean novels
of the 1950's (focused the works of the older generation)

Kim, Dong-yu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ung-hwa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acceptance of ideology on the Korean novel of the 1950's. Especially, I try to reveal the influence of anticommunist ideology on the works of the older generation including those of Yeom Sang-Seop, Kim Tong-Ree, Hwang Sun-Weon, Park Yeong-Jun, etc.

To this purpose, I first portray the milieu of the literary world at this juncture in time. Then, I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anticommunist ideology with respect to abstraction and schematism. I also investigate how the acceptance of anticommunist ideology, affected the viewpoints of theme and idea. Finally, I generalize to what effect older generation had on the new generation in this period. I historically outl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ideological acceptance by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consciousness of the cold war. As a result, I can reach several conclusions.

From the Liberation in 1945 the Korean war and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the resulting anticommunist fears became a trigger to deepen the ideologies of the cold war. This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 was reflected in the literary work. Especially for the older generation of writers, they tended to accept the anticommunist ideology which the government wanted to spread in the of liberation and was characterized by military administration and Lee Seung-Man's domination.

Their works were written from a personal perspective which came from the writers' biographic background, and this was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situation and the influence of the war. The older generation's novels which treated the viewpoint of war, land reform, and social innovation did not embody a wider historical prospect. Thus, they used abstractions in the grasp of reality.

There is a recurring theme in the novels of older generation in the 1950's which treated the aspect of the left and the right. Namely, the leftist is evil and the rightist is good. And the leftist comes to a miserable end while the rightist exhibits nation-concerning behavior out of humanistic concern.

The older generation's novels largely focused their themes on humanism, seriousness, and lesson. The humanism expressed was under the influence anticommunist ideology. Also the expression of seriousness and lesson exhibited a nation-concerning complex which came from anticommunist ideology.

Also, existentialism was a trait of the novels of the 1950's that made a contribution to the progres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the formation of anticommunist literature. The new generation accepted existentialism more positively than the older generation.

Strictly speaking, there was no realistic approach to ideology in the novels of the 1950's. Most of the approach was abstract and idealized. This phenomenon came from two factors. One was the influence on literature such as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 The other was the essential factor that the long-story was not universalized as literary form.

From the viewpoint of literary history, the new generation tended to accept anticommunist ideology which influenced the new generation. Sometimes, the new generation writers accepted anticommunist ideology more positively than the older generation writers

Among the novels of older generation in 1950's which were reflected in the anticommunist ideology of their novels perpetuated the cold-war literature when this attitude took root as a literary custom.

As stated above, the literature of the cold war written by older generation in the 1950's strong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ovel. Anticommunist

ideology had a negative effect on literature, but provided a lesson. This lesson was that the abstract acceptance of the ideology had bad influence on the value of the works. Of course, this aspect of ideological acceptance does not represent the writing act of older generation. All the older generation's literature does not damaged by this negative aspect of the ideological acceptance. But, because this tendency was clearly a part of the older generation's literature, one should be aware of the fact that this ideological influence occupied a seat in their literature.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ture reflects many problems in understanding how the literature was evolved from the liberation to the division. In this period, North Korea had more literature which treated the war and the division than South Korea. This literature, which dealt with the war and the division, reinforced the consciousness of the war, the consciousness of strife, the super-patriotism, and the consciousness of anti-Americanism in North Korea during that period. Although there was a difference in degree, it seems that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ture was reflected rigid ideological acceptance and the consciousness of division under their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Comparing the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ture, the rigid attitudes which evolved under the two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become apparent. They are complementary. Thus, North and South Korean literature need to be studied comparatively to establish a correct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ry history and unified literary history. From this can come a more objective criticism and a better understanding.